

USA Literature In Brief

미국 문학 개관

EXECUTIVE EDITOR: GEORGE CLACK • AUTHOR: KATHRYN VANSPANCKEREN

•EDITOR: PAUL MALAMUD • DESIGNER: CHLOE D. ELLIS • COVER

ILLUSTRATION SALLY VITSKY • COVER DESIGN MIN YAO

- 편집숏달: 조지 클랙 • 작가: 캐스린 반스판케렌
- 편집인: 폴 맬라머드 • 디자인: 클로에 D. 엘리스
- 표지일러스트: 샬리 비츠키 • 표지디자인: 민 야오

ABOUT THE AUTHOR

Kathryn VanSpanckeren, professor of English at the University of Tampa, has lectured in American literature widely abroad, and is former director of the Fulbright-sponsored Summer Institute in American Literature for international scholars. Her publications include poetry and scholarship. She received her Bachelors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nd her Ph.D. from Harvard University.

저자 소개

캐스린 반스팬커런 탬퍼대학 영어과 교수는 여러 나라에서 미국 문학을 강의해 왔고, 해외 학자들을 위해 폴브라이트 재단에서 후원하는 미국 문학 여름학교의 소장을 역임했다. 주로 시(詩)와 학술논문을 발표해 온 저자는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EARLY AMERICAN WRITING



"The First Thanksgiving, 1621," by J.L.G. Ferris, depicts America's early settlers and Native Americans celebrating a bountiful harvest. Courtesy Library of Congress.

The foundation of American literature begins with the orally transmitted myths, legends, tales, and lyrics (always songs) of Indian cultures. Native American oral tradition is quite diverse. Indian stories glow with reverence for nature as a spiritual, as well as physical, mother.

초기 미국 문학



J.L.G. 페리스의 「1621년 첫 번째 추수감사절(The First Thanksgiving, 1621)」에서는 초창기 식민지 이주자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풍작을 축하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미국 문학의 토대는 구두로 전해지는 인디언 신화, 전설, 설화, 서정시(항상 노래로 불린)에서 비롯된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구전 문학은 사뭇 다양하다. 인디언 설화는 자연을 정신적, 물질적 어머니로 경외함으로써 빛을 발한다.

Nature is alive and endowed with spiritual forces; main characters may be animals or plants, often totems associated with a tribe, group, or individual.

The Indian contribution to America is greater than is often believed. The hundreds of Indian words in everyday American English include “canoe,” “tobacco,” “potato,” “moccasin,” “moose,” “persimmon,” “raccoon,” “tomahawk,” and “totem.” Contemporary Native American writing, discussed in chapter 8, also contains works of great beauty.

The first European record of exploration in America is in a Scandinavian language. The Old Norse Vinland Saga recounts how the adventurous Leif Eriksson and a band of wandering Norsemen settled briefly somewhere on the northeast coast of America—probably Nova Scotia, in Canada—in the first decade of the 11th century.

The first known and sustained contact between the Americas and the rest of the world, however, began with the famous voyage of an Italian explorer, Christopher Columbus, funded by the Queen of Spain, Isabella. Columbus’s journal in his “Epistola,” printed in 1493, recounts the trip’s drama.

Initial English attempts at colonization were disasters. The first colony was set up in 1585 at Roanoke, off the coast of North Carolina; all its colonists disappeared. The second colony was more permanent: Jamestown, established in 1607. It endured starvation, brutality, and misrule. However, the literature of the period paints America in glowing colors as the land of riches and opportunity.

자연은 살아 있는 생명체이자 영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주인공은 동식물이거나 부족, 집단, 개인과 결부된 토tem인 경우가 많다.

아메리카 인디언이 미국에 기여한 바는 생각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미국 영어에는 ‘canoe(카누)’, ‘tobacco(담배)’, ‘potato(감자)’, ‘moccasin(뒤축 없는 가죽 구두)’, ‘moose(큰 사슴)’, ‘persimmon(감)’, ‘raccoon(미국 너구리)’, ‘tomahawk(도끼)’, ‘totem(토tem)’ 등 인디언 언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수백 가지이다. 또한 8장에서 거론될 현대 아메리카 원주민 문학 역시 탁월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유럽인에 의한 최초의 아메리카 대륙 탐험기는 스칸디나비아 언어로 기록되었다. 고대 스칸디나비아어로 작성된 『빈란드 사가(Vinland Saga)』에서는 모험을 좋아하는 레이프 에릭슨과 스칸디나비아인 방랑자 우리가 11세기 초 아메리카 북동부 연안(아마도 캐나다 노바스코티아)에 일시적으로 머물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이 다른 세계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고 알려진 것은 이탈리아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의 재정 지원을 받아 유명한 항해에 나서면서이다. 1493년 「에피스토라(Epistola)」라는 제목으로 간행된 항해일지에서 콜럼버스는 이렇듯 극적인 여정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영국인들에 의한 최초의 식민지화 노력은 재난에 가까웠다. 최초의 식민지는 1585년 노스캐롤라이나 연안 로어노크에 건설되었는데, 식민지 개척자 전원이 실종되었다. 1607년 두 번째로 건설된 식민지 제임스타운은 수명이 더욱 길었다.

Accounts of the colonizations became world-renowned.

In the 17th century, pirates, adventurers, and explorers opened the way to a second wave of permanent colonists, bringing their wives, children, farm implements, and craftsmen's tools. The early literature of exploration is made up of diaries, letters, travel journals, ships' logs, and reports to the explorers' financial backers. Because England eventually took possession of the North American colonies, the best known and most anthologized colonial literature is English.

It is likely that no other colonists in the history of the world were as intellectual as the Puritans, most of them of English or Dutch origin. Between 1630 and 1690, there were as many university graduates in the northeastern section of the United States, known as New England, as in England. The self-made and often self-educated Puritans wanted education to understand and execute God's will as they established their colonies throughout New England.

Puritan style varied enormously—from complex metaphysical poetry to homely journals and crushingly pedantic religious history. Whatever the style or genre, certain themes remained constant. Life was seen as a test; failure led to eternal damnation and hellfire, and success to heavenly bliss.

그곳에서는 굶주림과 난폭함과 무질서를 견뎌야 했다. 그러나 당대의 문학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을 부와 기회의 땅으로 화려하게 그리고 있다.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7세기에는 해적, 모험가, 탐험가들이 아내와 자녀를 동반한 채 농기구와 공구를 들여오면서 두 번째의 식민지 정착민 물결을 이루었다. 초기의 탐험 문학은 일기, 서신, 여행일지, 항해일지, 그리고 탐험가의 재정적 후원자에게 보내는 보고서 등으로 구성되었다. 궁극적으로 영국이 북아메리카 식민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가장 유명한 작품집들은 영어로 작성되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지적인 식민지 개척자들은 대부분 영국 혹은 네덜란드 출신의 청교도일 것이다. 1630년에서 1690년 사이, 뉴잉글랜드로 알려진 미국 북동부 지역의 대학 졸업생 수는 영국과 비슷했다. 주로 독학을 통해 자수성가한 청교도들은 뉴잉글랜드 전역에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하느님을 이해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했다.

청교도 문학은 복잡한 형이상학적 시에서 조야한 일지와 지극히 현학적인 종교사에 이르기까지 형식이 다양하다. 그러나 형식이나 장르를 불문하고 이들 문학이 다루는 주제들은 한결같았다. 인생은 일종의 시험으로 여겨졌다. 실패는 영원한 저주와 지옥 불의 나락으로, 그리고 성공은 천국의 환희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This world was an arena of constant battle between the forces of God and the forces of Satan, a formidable enemy with many disguises.

Scholars have long pointed out the link between Puritanism and capitalism: Both rest on ambition, hard work, and an intense striving for success. Although individual Puritans could not know, in strict theological terms, whether they were “saved” and among the elect who would go to heaven, Puritans tended to feel that earthly success was a sign of election. Wealth and status were sought not only for themselves, but as welcome reassurances of spiritual health and promises of eternal life.

Moreover, the concept of stewardship encouraged success. The Puritans felt that in advancing their own profit and their community’s well-being, they were also furthering God’s plans. The great model of writing, belief, and conduct was the Bible, in an authorized English translation. The great antiquity of the Bible made it authoritative to Puritan eyes.

As the 1600s wore on into the 1700s, religious dogmatism gradually dwindled, despite sporadic, harsh Puritan efforts to stem the tide of tolerance. The spirit of toleration and religious freedom that gradually grew in the American colonies was first established in Rhode Island and Pennsylvania, home of the Quakers. The humane and tolerant Quakers, or “Friends,” as they were known, believed in the sacredness of the individual conscience as the fountainhead of social order and morality.

이 세상은 하느님의 힘과 사탄의 힘 사이에 벌어지는, 끊임없는 투쟁의 영역이었다. 사탄은 여러 얼굴을 지닌 막강한 적이었던 것이다.

학자들은 청교도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연결고리를 오랫동안 지적해 왔다. 두 가지 사상 모두 야망, 근면, 그리고 성공에의 강렬한 열망에 바탕을 둔다. 청교도 각자는 엄밀한 신학적 용어로 자신이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도록 선택된 자에 속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청교도들은 세속적 성공이 선택의 징후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부와 지위는 자신들을 위해서만 추구되지 않고 영적 건강과 영생의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영받았다.

또한 청지기 의식이라는 개념이 성공을 장려했다. 청교도들은 개인의 영리와 지역사회의 복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하느님의 계획도 추진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글쓰기와 신앙과 행동의 위대한 전형이 되는 것은 공인된 영역 판 성경이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성경은 청교도들에게 권위 그 자체였다.

1600년대에서 1700년대로 접어들면서 관용의 물결을 무자비하게 저지하려는 청교도들의 산발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교조주의는 점차 쇠퇴 일로에 접어들었다.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관용 정신과 종교의 자유는 퀘이커 교도들의 본거지인 로드아일랜드와 펜실베이니아에 일차적으로 자리잡았다. “친구(friend)”라고 알려진, 인간적이고 관용적인 퀘이커 교도들은 신성한 개인적 양심이 사회 질서와 윤리의 원천이라고 믿었다.

The fundamental Quaker belief in universal love and brotherhood made them deeply democratic and opposed to dogmatic religious authority. Driven out of strict Massachusetts, which feared their influence, they established a very successful colony, Pennsylvania, under William Penn in 1681.

보편적 사랑과 형제애에 대한 퀘이커 교도들의 근본적 믿음은 그들을 지극히 민주적인 사람들로 만들었고, 교조주의적 종교 권력에 반대하도록 했다. 퀘이커 교도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두려워하는, 엄격한 분위기의 매사추세츠를 벗어나 1681년 펜실베이니아(윌리엄 펜의 이름을 딴)에 대단히 성공적인 식민지를 건설했다.

LITERARY INDEPENDENCE

The hard-fought American Revolution against Britain (1775-1783) was the first modern war of liberation against a colonial power. The triumph of American independence seemed to many at the time a divine sign that America and her people were destined for greatness. Military victory fanned nationalistic hopes for a great new literature. Yet, with the exception of outstanding political writing, few works of note appeared during or soon after the Revolution.

Americans were painfully aware of their excessive dependence on English literary models. The search for a native literature became a national obsession. America's literary independence was slowed by a lingering identification with England, an excessive imitation of English or classical literary models, and difficult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that hampered publishing.

문학의 독립

영국을 상대로 힘겨운 투쟁을 벌였던 미국 독립혁명(1775-1783)은 식민권력에 저항하여 자유를 얻기 위한 최초의 근대적 전쟁이었다. 미국의 독립 쟁취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이라는 국가와 미국인들이 위대해지리라는, 모종의 신성한 징후처럼 여겨졌다. 군사적 승리는 위대하고 새로운 문학에 대한 국가적 희망을 부채질했다. 그러나 뛰어난 정치 문서들을 제외하고는 독립혁명 기간 또는 직후에 주목할 만한 작품이 등장하지 못했다.

미국인들은 영국 문학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뼈저리게 의식하고 있었다. 자생적 문학의 추구는 국자 차원의 집념으로 자리잡았다. 영국에 대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동일화, 영국 문학 또는 고전 문학의 과도한 모사, 그리고 출판을 저해하는 경제적, 정치적 난관으로 인해 미국 문학의 독립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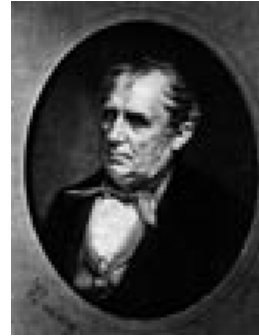
James Fenimore Cooper
1789-1851

JAMES FENIMORE COOPER, like Washington Irving, was one of the first great American writers. Like other Romantic writers of the era, he evoked a sense of the past (in his day, the American wilderness that had preceded and coincided with early European settlement). In Cooper, one finds the powerful myth of a “golden age” and the poignance of its loss.

While Washington Irving and other American writers before and after him scoured Europe in

search of its legends, castles, and great themes, Cooper helped create the essential myth of America: European history in America was a re-enactment of the Fall in the Garden of Eden. The cyclical realm of nature was glimpsed only in the act of destroying it: The wilderness disappeared in front of American eyes, vanishing before the oncoming pioneers like a mirage. This is Cooper's basic tragic vision of the ironic destruction of the wilderness—the “new Eden” that had attracted the colonists in the first place.

The son of a Quaker family, he grew up on his father's remote estate at Otsego Lake (now Cooperstown) in central New York State. Although this area was relatively peaceful during Cooper's boyhood, it had once been the scene of an Indian massacre. Young Fenimore Cooper saw frontiersmen and Indians at Otsego Lake as a boy; in later life, bold white settlers intruded on his land.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
(1789-1851)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는 워싱턴 어빙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위대한 미국 작가 중 하나이다. 당대의 다른 낭만주의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쿠퍼는 과거에 대한 의식(유럽인들의 초기 이주 이전 혹은 당시의 아메리카 대륙 황야)을 환기시켰다. 쿠퍼의 작품에서는 “황금기”의 강력한 신화와 그 상실의 통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쿠퍼가 활약했던 시대를 전후하여 워싱턴 어빙과 여타의 미국 작가들이 전설과 성곽과 위대한 주제를 찾아 유럽을 전전했던

것과는 달리, 쿠퍼는 미국의 필수적인 신화 창조에 이바지했다. 미국에서 유럽인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을 재현한 것이었다. 순환적인 자연계는 그러한 자연계의 파괴를 통해서만 어렵곳이 파악될 수 있었다. 황야는 미국인 개척자들의 눈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이것이야말로 황야의 아이러니컬한 파괴에 대한 쿠퍼의 비극적 시각이었다. 처음에 식민지 개척자들을 사로잡았던 “새로운 에덴”이 파괴된 것이었다.

웨이커 교도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쿠퍼는 뉴욕 주 중부 옷세고 호수(현 쿠퍼스타운) 외딴 곳에 위치한, 부친 소유의 토지에서 성장했다. 쿠퍼의 소년 시절에는 비교적 평화로운 지역이었지만, 한때는 인디언 학살의 현장이었다. 소년 쿠퍼는 옷세고 호수에서 개척자들과 인디언들을 보며 자랐고, 이후에는 파렴치한 백인 이주자들이 토지를 침범했다.

Natty Bumppo, Cooper's renowned literary character, embodies his vision of the frontiersman as a gentleman, a Jeffersonian "natural aristocrat." Early in 1823, in *The Pioneers*, Cooper had begun to imagine Bumppo. Natty is the first famous frontiersman in American literature, and the literary forerunner of countless fictional cowboy and backwoods heroes. He is the idealized, upright individualist who is better than the society he protects. Poor and isolated, yet pure, he is a touchstone for ethical values, and prefigures Herman Melville's *Billy Budd* and Mark Twain's *Huck Finn*.

Based in part on the real life of American pioneer Daniel Boone—who was a Quaker like Cooper—Natty Bumppo, an outstanding woodsman like Boone, was a peaceful man adopted by an Indian tribe. Both Boone and the fictional Bumppo loved nature and freedom. They constantly kept moving west to escape the oncoming settlers they had guided into the wilderness, and they became legends in their own lifetimes.

The unifying thread of the five novels collectively known as the *Leather-Stocking Tales* is the life of Natty Bumppo. Cooper's finest achievement, they constitute a vast prose epic with the North American continent as setting, Indian tribes as major actors, and great wars and westward migration as social background.

쿠퍼의 작품에 등장하는 유명한 주인공 내티 범포는 개척자를 신사로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 다시 말해 제퍼슨식의 "타고난 귀족"이 구현되어 있다. 1823년 초에 발표된 『개척자들(*The Pioneers*)』에서 쿠퍼는 범포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범포는 미국 문학에서 최초로 유명한 개척자가 되었고, 이후 소설에 등장하는 수많은 카우보이와 미개척지 영웅들의 문학적 전범으로 자리잡았다. 범포는 이상적이고 고결한 개인주의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사회보다 우월한 인물이다. 가난하고 고립되어 있지만 순수한 그는 도덕적 가치의 시금석 역할을 하고, 허먼 멜빌의 빌리 버드 혹은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과 같은 주인공들의 선례가 된다.

실존했던 미국인 개척자이자 쿠퍼처럼 퀘이커 교도였던 대니얼 분에 일부 바탕을 둔 내티 범포는 분처럼 걸출한 삼림 거주자였고 인디언 부족이 받아들인 평화주의자였다. 실존 인물인 분과 소설 속의 범포 모두 자연과 자유를 사랑했다. 자신들이 황야로 안내했던 식민지 이주자들을 피해 분과 범포는 서부로 계속 나아가면서 당대의 전설로 자리잡았다.

『가죽 각반 이야기(*Leather-Stocking Tales*)』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다섯 편의 소설들을 관통하는 것은 내티 범포의 생애이다. 쿠퍼의 최대 걸작인 이들 작품은 북미 대륙을 지리적 배경으로, 그리고 대규모 전쟁과 서부 이주를 사회적 배경으로 한 채 인디언 부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대 서사시를 구성한다.

The novels bring to life frontier America from 1740 to 1804. Cooper's novels portray the successive waves of the frontier settlement: the original wilderness inhabited by Indians; the arrival of the first whites as scouts, soldiers, traders, and frontiersmen; the coming of the poor, rough settler families; and the final arrival of the middle class, bringing the first professionals—the judge, the physician, and the banker. Each incoming wave displaced the earlier: Whites displaced the Indians, who retreated westward; the “civilized” middle classes who erected schools, churches, and jails displaced the lower-class individualistic frontier folk, who moved further west, in turn displacing the Indians who had preceded them. Cooper evokes the endless, inevitable wave of settlers, seeing not only the gains but the losses.

Like Rudyard Kipling, E.M. Forster, Herman Melville, and other sensitive observers of widely varied cultures interacting with each other, Cooper was a cultural relativist. He understood that no culture had a monopoly on virtue or refinement.

이들 소설은 1740년부터 1804년까지의 아메리카 변방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쿠퍼의 소설들은 인디언들이 본래부터 거주하던 당시의 황야, 최초의 백인 경찰대와 군인과 상인과 개척자들의 도착, 가난하고 거친 이주자 가족들의 도착, 마지막으로 판사와 의사와 은행가 등 최초의 전문 직업인들을 데려온 중산계급의 도착으로 이어지는 식민지 이주사를 묘사한다. 이주민들의 물결이 밀려올 때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대신했다.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대신하면서 인디언들은 서부로 물러났다. “문명화된” 중산계급은 학교와 교회와 감옥을 건설하면서 하층계급의 개인주의적인 개척자들을 대신했다. 이들 개척자 역시 서부로 향하면서 그곳으로 이미 후퇴해 있던 인디언들을 대신했다. 쿠퍼는 끊임없고 필연적인 이주민 물결을 환기시키면서 그러한 이주를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 모두를 제시한다.

러드야드 키플링, E.M. 포스터, 허먼 멜빌,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상호작용을 예민하게 관찰했던 여타의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쿠퍼는 문화적 상대주의자였다. 그는 어떠한 문화도 미덕이나 고상함을 독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NEW ENGLAND ROMANTICISM

The Romantic movement, which originated in Germany but quickly spread, reached America around the year 1820. Romantic ideas centered around the spiritual and aesthetic dimension of nature, and the importance of the individual mind and spirit. The Romantics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self-expressive art for the individual and society.

The development of the self became a major theme; self-awareness a primary method. If, according to Romantic theory, self and nature were one, self-awareness was not a selfish dead-end but a mode of knowledge opening up the universe. If one's self were one with all humanity, then the individual had a moral duty to reform social inequalities and relieve human suffering. The idea of "self," which suggested selfishness to earlier generations, was redefined. New compound words with positive meanings emerged: "self-realization," "self-expression," "self-reliance."

As the unique, subjective self became important, so did the realm of psychology. Exceptional artistic effects and techniques were developed to evoke heightened psychological states.

뉴잉글랜드 낭만주의

독일에서 시작되어 급속히 퍼져나간 낭만주의 운동은 1820년경 미국에 도착했다. 낭만주의적 사고는 자연의 정신적 차원과 미학적 차원, 그리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자기표현적 예술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자아의 개발이 중요한 주제로 자리잡으면서 자기인식이 일차적인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낭만주의 이론에서는, 자아와 자연이 하나라면 자기인식은 이기적인 교착 상태가 아니라 우주로 향하는 지식 축적의 수단이 된다. 개인의 자아가 인류 전체와 하나라면 그러한 개인은 사회적 불평등을 개혁하고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킬 도덕적 의무가 있다. 과거 세대에게 이기주의를 의미했던 "자아"라는 개념은 재정의되었다. 이에 따라 "자기실현", "자기표현", "자기의존" 등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합성어들이 등장했다.

특독하고 주관적인 자아가 중요해지면서 심리학 분야도 각광을 받았다. 고양된 심리 상태를 환기시키기 위해 이례적인 예술 기법과 효과가 개발되었다.

The “sublime”—an effect of beauty in grandeur (for example, a view from a mountaintop)—produced feelings of awe, reverence, vastness, and a power beyond human comprehension.

Romanticism was affirmative and appropriate for most American poets and creative essayists. America’s vast mountains, deserts, and tropics embodied the sublime. The Romantic spirit seemed particularly suited to American democracy: It stressed individualism, affirmed the value of the common person, and looked to the inspired imagination for its aesthetic and ethical values.

Transcendentalism

The Transcendentalist movement, embodied by essayists Ralph Waldo Emerson and Henry David Thoreau, was a reaction against 18th century Rationalism, and closely linked to the Romantic movement. It is closely associated with Concord, Massachusetts, a town near Boston, where Emerson, Thoreau, and a group of other writers lived.

In general, Transcendentalism was a liberal philosophy favoring nature over formal religious structure, individual insight over dogma, and humane instinct over social convention. American Transcendental Romantics pushed radical individualism to the extreme. American writers—then or later —often saw themselves as lonely explorers outside society and convention.

예컨대 산의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 등의 장관(壯觀)에 의한 미적 효과를 가리키는 “숭고미”는 경외심과 광대함, 그리고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힘에 대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낭만주의는 미국의 시인과 창의적인 수필가 대다수에게 긍정적이고 적절한 것이었다. 미국의 광대한 산악과 사막과 열대 지역은 숭고미를 구현했다. 낭만주의 정신은 특히 미국적 민주주의에 어울리는 듯했다. 개인주의를 강조하고, 보통 사람의 가치를 긍정하며, 미학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위해 영감으로 가득한 상상력을 모색하기 때문이었다.

초월주의

랠프 월도 에머슨과 헨리 데이비드 소로 등의 수필가들이 구현한 초월주의 운동은 18세기 합리주의에 대한 반향이었고 낭만주의 운동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다. 초월주의 운동은 에머슨, 소로, 그리고 일단의 다른 작가들이 거주했던 매사추세츠 주 콩코드(보스턴 근처에 위치한 도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초월주의는 일종의 자유주의 철학으로서 형식적, 종교적 구조보다 자유를, 교조주의보다 개인의 통찰력을, 그리고 사회적 관습보다 인간적 본능을 선호한다. 미국의 초월주의적 낭만주의자들은 급진적인 개인주의를 극단적으로 추구했다. 당대 또는 이후의 미국 작가들은 스스로를 사회와 관습을 벗어난 고독한 탐험가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The American hero—like Herman Melville's Captain Ahab, or Mark Twain's Huck Finn—typically faced risk, or even certain destruction, in the pursuit of metaphysical self-discovery. For the Romantic American writer, nothing was a given. Literary and social conventions, far from being helpful, were dangerous. There was tremendous pressure to discover an authentic literary form, content, and voice.

RALPH WALDO EMERSON, the towering figure of his era, had a religious sense of mission. Although many accused him of subverting Christianity, he explained that, for him “to be a good minister, it was necessary to leave the church.” The address he delivered in 1838 at his alma mater, the Harvard Divinity School, made him unwelcome at Harvard for 30 years. In it, Emerson accused the church of emphasizing dogma while stifling the spirit.

Emerson is remarkably consistent in his call for the birth of American individualism inspired by nature. In *Nature* (1836), his first publication, the essay opens:

Our age is retrospective. It builds the sepulchers of the fathers. It writes biographies, histories, criticism. The foregoing generations beheld God and nature face to face; we [merely] through their eyes.



Ralph Waldo Emerson
1803-1882

허먼 멜빌의 에이해브 선장 혹은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과 같은 미국적 주인공은 형이상학적인 자기발견의 추구 과정에서 위험 혹은 모종의 파괴에 직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미국의 낭만주의 작가들에게는 아무 것도 미리 주어지지 않았다. 문학적 관습과 사회적 관습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위험했다. 이에 따라 독창적인 문학 형식과 내용과 목소리를 발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상당했다.

랄프 월도 에머슨은 당대의 출중한 작가로서 종교적 사명의식을 지녔다. 기독교를 전복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에머슨은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교회를 떠나야 했다”고 해명했다. 1838년 모교인 하버드 대학 신학부에서 행한 연설로 그는 30년간 모교에서 환영받지 못하게 되었다. 에머슨은 이 연설을 통해 교회가 영혼을 질식시키면서 교조주의를 강조한다고 비난했다.



랄프 월도 에머슨
(1803-1882)

에머슨은 자연을 통해 고쳐된 미국식 개인주의의 탄생을 위해 놀라우리만큼 일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의 수필 중 첫 번째로 발표된 『자연론(Nature)』(1836)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우리 시대는 회고의 시대이다. 선조들의 안치소를 세우는 시대이다. 전기와 역사와 비평을 쓰는 시대이다. 이전 세대들은 얼굴을 맞대고 신과 자연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단지] 그들의 눈을 통해서만 바라볼 따름이다.

Why should not we also enjoy an original relation to the universe? Why should not we have a poetry of insight and not of tradition, and a religion by revelation to us, and not the history of theirs. Embosomed for a season in nature, whose floods of life stream around and through us, and invite us by the powers they supply, to action proportioned to nature, why should we grope among the dry bones of the past...?

Much of his spiritual insight comes from his readings in Hinduism, Confucianism, and Islamic Sufism.



Henry David Thoreau
1817-1862

HENRY DAVID THOREAU was born in Concord and made it his permanent home. From a poor family, like Emerson, he worked his way through Harvard. Thoreau's masterpiece, *Walden, or Life in the Woods* (1854), is the result of two years, two months, and two days (from 1845 to 1847) he spent living in a cabin he built at Walden Pond, near Concord. This long poetic essay challenges the reader to

examine his or her life and live it authentically.

Thoreau's essay "Civil Disobedience," with its theory of passive resistance based on the moral necessity for the just individual to disobey unjust law, was an inspiration for Mahatma Gandhi's Indian independence movement and Martin Luther King's struggle for black Americans' civil rights in the 20th century.

왜 우리도 우주와의 근원적 관계를 즐기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전통으로 내려오는 시(詩)가 아니라 통찰력으로 쓴 시를,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계시되는 종교를 가지지 못하는가? 자연의 넘쳐흐르는 생명은 우리 주위에 그리고 우리를 관통하여 흐르고, 그러한 생명력을 통해 자연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자연의 품에 잠시 안겨 있는 우리는 왜 과거의 메마른 유골들을 더듬어야 하는가?

에머슨의 영적 통찰력은 대부분 힌두교, 유교, 그리고 이슬람교 신비주의에 관한 독서에서 비롯되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1817-18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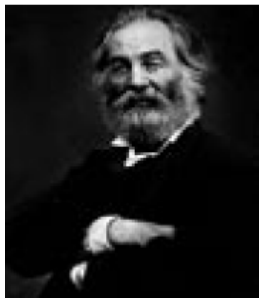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콩코드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평생을 보냈다. 에머슨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집안 출신인 그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버드를 졸업했다. 소로의 대표작 『숲 속의 생활(Walden, or Life in the Woods)』(1854)은 그가 콩코드 근처 월든 폰드에 지은 오두막집에서 2년 2개월 2일간(1845년부터 1847년까지) 지냈던 경험의 산물이다. 시흥이 넘치는 이 장편 수필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진정한 삶을 살도록 권유한다.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은 정당한 개인이 부당한 법에 불복해야 할 도덕적 필요성에 근거한 수동적 저항론을 통해, 20세기 마하트마 간디의 인도 독립운동과 마틴 루터 킹의 흑인 인권 투쟁에 영감을 불어넣은 작품이다.

Born on Long Island, New York, **WALT WHITMAN** was a part-time carpenter and man of the people, whose brilliant, innovative work expressed the country's democratic spirit. Whitman was largely self-taught; he left school at the age of 11 to go to work, missing the sort of traditional education that made most American authors respectful imitators of the English. His *Leaves of Grass* (1855), which he rewrote and revised throughout his life, contains "Song of Myself," the most stunningly original poem ever written by an Americ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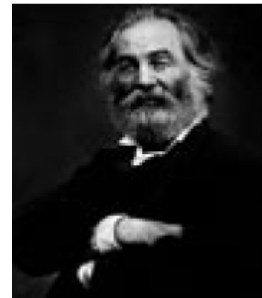
The poem's innovative, unrhymed, free-verse form, open celebration of sexuality, vibrant democratic sensibility, and extreme Romantic assertion that the poet's self was one with the universe and the reader, permanently altered the course of American poetry.



Walt Whitman
1819-1892

뉴욕 주 롱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월트 휘트먼**은 부업이 목수였다. 민중의 대변자였던 그의 뛰어나고 혁신적인 작품들은 미국의 민주주의 정신을 표현했다. 휘트먼은 대부분의 교육을 독학으로 마쳤다. 11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터로 나선 그는, 대다수 미국 작가들을 영국 문학의 충실한 모방자로 만들었던 전통적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그가 평생에 걸쳐 글쓰기와 퇴고를 반복했던 시집 『풀잎(*Leaves of Grass*)』(1855)에는 미국인이 쓴 시 중 가장 독창적인 「자아의 노래(*Song of Myself*)」가 수록되어 있다.

휘트먼의 혁신적이고 자유로운 무운시(無韻詩), 성(性)의 공개적 찬양, 생생한 민주주의적 감수성, 그리고 시인의 자아가 우주와 독자와 하나라는 극단적 낭만주의는 미국 시의 흐름을 영구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월트 휘트먼
(1819-1892)



Emily Dickinson
(1830-1886)

EMILY DICKINSON is, in a sense, a link between her era and the literary sensitivities of the 20th century. A radical individualist, she was born and spent her life in Amherst, Massachusetts, a small village. She never married, and she led an unconventional life that was outwardly uneventful but was full of inner intensity. She loved nature and found deep inspiration in the birds, animals, plants, and changing seasons of the New England countryside.

Dickinson spent the latter part of her life as a recluse, due to an extremely sensitive psyche and possibly to make time for writing.

Dickinson's terse, frequently imagistic style is even more modern and innovative than Whitman's. She sometimes shows a terrifying existential awareness. Her clean, clear, chiseled poems, rediscovered in the 1950s, are some of the most fascinating and challenging in American literature.



에밀리 디킨슨
(1830-1886)

에밀리 디킨슨은 그녀의 시대와 20세기 문학적 감수성 사이의 연결고리라고도 할 수 있다. 급진적 개인주의자였던 그녀는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소읍인 앰허스트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평생을 보냈다. 디킨슨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채, 외적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적인 강렬함으로 가득한, 자유로운 삶을 영위했다. 자연을 사랑한 그녀는 새, 동물, 식물, 그리고 뉴잉글랜드 시골의 계절 변화에서 깊은 영감을 얻었다. 디킨슨은 인생의 후반기를 은둔자로 보냈다. 극도로 민감한 정신의 소유자인데다가, 아마도

글쓰기에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디킨슨의 간결하고 이미지즘적인 문체는 휘트먼보다 현대적이고 혁신적이다. 이따금 그녀는 무서운 실존의식을 제시하기도 한다. 1950년대에 재발견된 깔끔하고 명확하며 정교한 시들은 미국 문학에서 지극히 매력적이고 도전적인 작품들 중 일부로 자리잡았다.

THE FIRST GREAT NOVELISTS

Walt Whitman, Herman Melville, Emily Dickinson—as well as their contemporaries, Nathaniel Hawthorne and Edgar Allan Poe—represent the first great literary generation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case of fiction writers, the Romantic vision tended to express itself in the form Hawthorne called the “Romance,” a heightened, emotional, and symbolic form of the novel. As defined by Hawthorne, Romances were not love stories, but serious novels that used special techniques to communicate complex and subtle meanings.

Instead of carefully defining realistic characters through a wealth of detail, as most English or continental novelists did, Hawthorne, Melville, and Poe shaped heroic figures larger than life, burning with mythic significance. The typical protagonists of the American Romance are haunted, alienated individuals. Hawthorne’s Arthur Dimmesdale or Hester Prynne in *The Scarlet Letter*, Melville’s Ahab in *Moby-Dick*, and the many isolated and obsessed characters of Poe’s tales are lonely protagonists pitted against unknowable, dark fates that, in some mysterious way, grow out of their deepest unconscious selves.

1세대의 위대한 소설가들

월트 휘트먼, 허먼 멜빌, 에밀리 디킨슨—동시대 작가인 너새니얼 호손 및 에드거 앨런 포와 함께—은 미국이 배출한 1세대의 위대한 작가들을 대표한다. 소설가들의 경우, 낭만주의적 비전은 호손이 “로맨스”라고 일컬은 형식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로맨스는 고양된 정서적, 상징적 소설 형식으로, 호손의 정의에 따르면 단순한 연애소설이 아니라 복잡 미묘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특별한 기법을 사용하는 본격소설이었다.

방대한 세부묘사를 통해 사실적인 인물을 신중하고 뚜렷하게 묘사하는 대다수의 영국 소설가 또는 유럽 대륙의 소설가들과 달리, 호손과 멜빌과 포는 주인공들을 신화적 의미로 타오르는, 실제보다 커다란 인물로 형상화했다. 미국 로맨스의 전형적인 주인공은 무연가에 사로잡히고 고립된 개인이다. 호손의 『주홍 글자(The Scarlet Letter)』에 등장하는 아서 딘스데일이나 헤스터 프린, 멜빌의 『백경(Moby-Dick; or, the Whale)』에 등장하는 에이해브, 그리고 포의 단편에 등장하는, 고립되고 무연가에 사로잡힌 다수의 인물들은 지극히 심오한 무의식적 자아에서 모종의 신비로운 방식으로 자라나는 미지의 어두운 운명에 대항하는 고독한 주인공들이다.

The symbolic plots reveal hidden actions of the anguished spirit.

One reason for this fictional exploration into the hidden recesses of the soul was the absence at the time of settled community. English novelists—Jane Austen, Charles Dickens (the great favorite), Anthony Trollope, George Eliot, William Thackeray—lived in a complex, well-articulated, traditional society and shared, with their readers, attitudes that informed their realistic fiction.

American novelists were faced with a history of strife and revolution, a geography of vast wilderness, and a fluid and relatively classless democratic society. Many English novels show a poor main character rising on the economic and social ladder, perhaps because of a good marriage or the discovery of a hidden aristocratic past. But this plot does not challenge the aristocratic social structure of England. On the contrary, it confirms it. The rise of the main character satisfies the wish fulfillment of the mainly middle-class readers of those days in England.

In contrast, the American novelist had to depend on his or her own devices. America was, in part, an undefined, constantly moving frontier populated by immigrants speaking various languages and following strange and crude ways of life. Thus, the main character in an American story might find himself alone among cannibal tribes, as in Melville's *Typee*, or exploring a wilderness like James Fenimore Cooper's *Leatherstocking*, or witnessing lonely visions from the grave, like Poe's solitary individuals,—or meeting the devil walking in the forest, like Hawthorne's *Young Goodman Brown*.

상징적인 플롯들은 괴로워하는 영혼의 감추어진 행동을 드러낸다.

이렇듯 영혼의 숨겨진 깊은 곳으로 소설적 탐험을 모색한 이유 중 하나는 안정적인 사회가 당시의 미국에 부재했기 때문이다. 영국 소설가들—제인 오스틴, 찰스 디킨스(대단한 인기를 모았던), 앤소니 트롤롭, 조지 엘리엇, 윌리엄 새커리—은 복합적이고 명확하게 구성된 전통 사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실주의 소설을 특징 짓는 태도를 독자들과 공유했다.

미국 소설가들은 반목과 혁명의 역사, 광대한 황야, 그리고 유동적이고 상대적으로 계급 구분이 없는 민주사회에 직면해 있었다. 다수의 영국 소설에서는 가난한 주인공이 성공적인 결혼을 통해 혹은 귀족 혈통이라는 숨겨진 사실이 발견되는 계기 등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사다리를 타고 상승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러한 플롯은 영국의 귀족 사회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사회 구조를 확인시켜 준다. 주인공의 상승은 당시 주로 중산계급이었던 영국 독자들의 소원 성취에 대한 대리만족이 된다.

반면 미국 소설가들은 자신이 고안한 장치에 의지해야 했다. 미국은 정의되지 않은 채 끊임없이 이동하는 변경이라고 할 수 있었고, 그곳에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민들이 낯설고 투박한 생활 방식을 따랐다. 그리하여 미국 소설의 주인공들은 멜빌의 『타이피(Typee)』에서처럼 식인종 부족 사이에서 홀로 남겨지거나,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의 『가죽 각반 이야기』에서처럼 황야를 탐험하거나, 포의 고독한 개인들처럼 무덤에서 외로운 환영들을 발견하거나, 호손의 『젊은 Goodman 브라운(Young Goodman Brown)』에서처럼 숲 속을 걸어 다니는 악마와 만난다.

Virtually all the great American protagonists have been “loners.” The democratic American individual had, as it were, to invent himself. The serious American novelist had to invent new forms as well: hence the sprawling, idiosyncratic shape of Melville’s novel *Moby-Dick* and Poe’s dreamlike, wandering *Narrative of Arthur Gordon Pym*.



Herman Melville
1819-1891

HERMAN MELVILLE was a descendant of an old, wealthy family that fell abruptly into poverty upon the death of the father. Despite his upbringing, family traditions, and hard work, Melville found himself with no college education. At 19, he went to sea. His interest in sailors’ lives grew naturally out of his own experiences, and most of his early novels grew out of his voyages. His first book, *Typee*,

was based on his time spent among the Taipis people in the Marquesas Islands of the South Pacific.

Moby-Dick; or, *The Whale*, Melville’s masterpiece, is the epic story of the whaling ship *Pequod* and its captain, Ahab, whose obsessive quest for the white whale, *Moby-Dick*, leads the ship and its men to destruction. This work, a seemingly realistic adventure novel, contains a series of meditations on the human condition.

미국 문학에서 거의 모든 위대한 주인공들은 “고독자”였다. 미국의 민주적인 개인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진지한 미국 작가들은 새로운 형식을 고안해야 했다. 그리하여 멜빌의 『백경』은 불규칙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포의 『아서 고든 팜의 모험(Narrative of Arthur Gordon Pym)』은 몽환적이고 방랑적인 방식으로 전개된다.



허먼 멜빌
(1819-1891)

허먼 멜빌은 유서 깊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친의 사망으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졌다. 교육적인 환경과 집안 전통, 그리고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멜빌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다. 19세가 되자 그는 바다로 향했다. 선원들의 삶에 대한 멜빌의 관심은 자신의 경험에서 자연스레 비롯되었고, 그의 초기작 대부분이 실제 항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멜빌의 처녀작 『타이피』는 남대평양 마르케사스 제도의 타이피 족과

함께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멜빌의 대표작 『백경』은 피쿼드라는 이름의 포경선과 에이해브 선장에 관한 서사적인 이야기이다. 모비딕이라는 흰 고래를 찾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힌 에이해브는 포경선과 선원들을 파괴로 몰아간다. 이 작품은 겉보기에 사실주의적인 모험소설로 보이지만, 인간의 조건에 대한 일련의 명상을 포함하고 있다.

Whaling, throughout the book, is a grand metaphor for the pursuit of knowledge. Although Ahab's quest is philosophical, it is also tragic. Despite his heroism, Ahab is doomed and perhaps damned in the end. Nature, however beautiful, remains alien and potentially deadly. In *Moby-Dick*, Melville challenges Emerson's optimistic idea that humans can understand nature. *Moby-Dick*, the great white whale, is an inscrutable, cosmic existence that dominates the novel, just as he obsesses Ahab. Facts about the whale and whaling cannot explain *Moby-Dick*; on the contrary, the facts themselves tend to dissolve into symbols. Behind Melville's accumulation of facts is a mystic vision—but whether this vision is evil or good, human or inhuman, is not explained.

Ahab insists on imaging a heroic, timeless world of absolutes. Unwisely, he demands a finished “text,” an answer. But the novel shows that just as there are no finished texts, there are no final answers except, perhaps, death. Certain literary references resonate throughout the novel. Ahab, named for an Old Testament king, desires a total, Faustian, god-like knowledge. Like Oedipus in Sophocles' play, who pays tragically for wrongful knowledge, Ahab is struck blind before he is finally killed.

작품 전체를 통해 고래잡이는 지식의 추구에 대한 중요한 은유로 작용한다. 에이해브의 추구는 철학적이면서 비극적이다. 영웅적인 면모에도 불구하고 그는 궁극적으로 파멸의 나락으로, 그리고 어쩌면 저주의 나락으로까지 빠지게 된다. 자연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여전히 낯설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이다. 『백경』에서 멜빌은 인간이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는 에머슨의 사상에 도전한다. 거대한 흰 고래 모비딕은 심원한 우주적 존재로서, 에이해브를 집착하게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작품 전체를 지배한다. 고래와 고래잡이에 대한 사실로는 모비딕을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사실들 자체가 일종의 상징으로 용해된다. 멜빌이 쌓아 올린 사실들의 이면에는 신비로운 비전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비전의 선악 여부, 혹은 인간적인 비전인가의 여부는 설명되지 않는다.

에이해브는 영웅적이고 초 시간적인 절대의 세계를 고집스레 상상한다. 현명치 못하게도 그는 모종의 완성된 “텍스트”, 다시 말해 해답을 요구한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완성된 텍스트란 없고 어쩌면 죽음 외에는 궁극적인 해답이란 없다는 점을 제시한다. 작품 전체를 통해 공명하는 것은 모종의 문학적 인용이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왕의 이름을 딴 에이해브는 총체적이고 파우스트적이며 신적인 지식을 욕망한다. 소포클레스의 희곡에 등장하는 오이디푸스가 잘못된 지식의 대가를 비극적으로 치러야 했듯, 에이해브는 최후를 맞기 전에 장님이 된다.

Ahab's ship Pequod is named for an extinct New England Indian tribe; thus the name suggests that the boat is doomed to destruction. Whaling was in fact a major industry, especially in New England: It supplied whale oil as an energy source, especially for lamps. Thus the whale does literally "shed light" on the universe. The book has historical resonance. Whaling was inherently expansionist and linked with the historical idea of a "manifest destiny" for Americans, since it required Americans to sail round the world in search of whales (in fact, the present state of Hawaii came under American domination because it was used as the major refueling base for American whaling ships). The Pequod's crew members represent all races and various religions, suggesting the idea of America as a universal state of mind, as well as a melting pot. Finally, Ahab embodies the tragic version of democratic American individualism. He asserts his dignity as an individual and dares to oppose the inexorable external forces of the universe.

포경선 피쿼드 호는 절멸해 버린 뉴잉글랜드 인디언 부족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따라서 피쿼드라는 명칭은 포경선이 파괴될 운명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고래잡이는 특히 뉴잉글랜드의 주요 산업이었다. 고래잡이를 통해 특히 램프에 필요한 연료인 고래기름이 공급되었다. 따라서 고래는 문자 그대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이다. 『백경』에는 역사적인 울림이 있다. 고래잡이는 본질상 팽창주의적이고 미국인의 "명백한 운명"이라는 역사적 사상과 결부되어 있다. 미국인들로 하여금 고래를 찾아 전 세계를 항해하도록 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지금의 하와이 주는 미국 포경선의 중요한 급유 기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피쿼드 호의 선원들은 일체의 민족과 다양한 종교를 상징하는데, 이는 미국이 인종과 문화의 도가니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 정신에 입각한 국가라는 사상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에이해브는 미국의 민주적 개인주의에 내재하는 비극적 비전을 구현한다. 그는 개인으로서의 운명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우주의 냉혹한 외력(外力)에 과감히 맞선다.

THE RISE OF REALISM

The U.S. Civil War (1861-1865) between the industrial North and the agricultural, slave-owning South was a watershed in American history. Before the war, idealists championed human rights, especially the abolition of slavery; after the war, Americans increasingly idealized progress and the “self-made man.” This was the era of the millionaire manufacturer and the speculator, when the Darwinian theory of biological evolution and the “survival of the fittest” species was applied to society and seemed to sanction the sometimes unethical methods of the successful business tyc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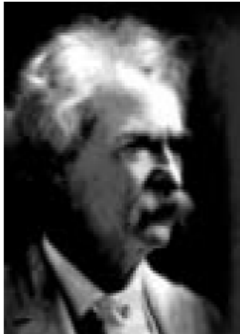
Business boomed after the war. The new intercontinental rail system, inaugurated in 1869, and the transcontinental telegraph, which began operating in 1861, gave industry access to materials, markets, and communications. The constant influx of immigrants provided a seemingly endless supply of inexpensive labor as well. Over 23 million foreigners—German, Scandinavian, and Irish in the early years, and increasingly Central and Southern Europeans thereafter—flowed into the United States between 1860 and 1910. In 1860, most Americans had lived on farms or in small villages, but by 1919 half of the population was concentrated in about 12 cities.

사실주의의 등장

공업 기반의 북부와 농업 및 노예제도 기반의 남부가 충돌한 남북전쟁(1861-1865)은 미국 역사의 분기점이었다. 전쟁 전에는 이상주의자들이 인권, 특히 노예제도의 폐지를 옹호했다. 그러나 전후의 미국인들은 진보와 “자수성가형 인물”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확대되었다. 이 시기는 백만장자 제조업자와 투기가들의 시대였고,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과 종의 “적자생존”이 사회에 적용됨으로써 재계의 성공한 거물이 이따금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듯했다.

전쟁이 끝나자 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들었다. 1869년 대륙간 철도가 준공되고 1861년에는 대륙 횡단 전신이 개통되면서 기업들은 자재, 시장, 통신수단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민자들이 끊임없이 유입되면서 저렴한 노동력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듯했다. 2300만이 넘는 외국인들—초창기에는 독일인, 스칸디나비아인, 아일랜드인, 그리고 이후 증가한 중부 및 남부 유럽인들—이 1860년에서 1920년 사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왔다.

Problems of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ppeared: poor and overcrowded housing, unsanitary conditions, low pay (called “wage slavery”), difficult working conditions, and inadequate restraints on business. Labor unions grew, and strikes brought the plight of working people to national awareness. Farmers, too, saw themselves struggling against the “money interests” of the East. From 1860 to 1914, the United States was transformed from a small, agricultural ex-colony to a huge, modern, industrial nation. A debtor nation in 1860, by 1914 it had become the world’s wealthiest state. By World War I, the United States had become a major world p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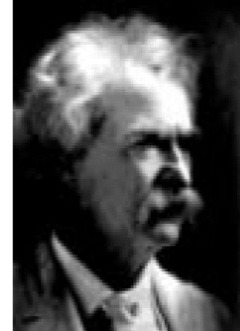
Samuel Clemens
(Mark Twain)
1835-1910

As industrialization grew, so did alienation. The two greatest novelists of the period—Mark Twain and Henry James—responded differently. Twain looked South and West into the heart of rural and frontier America for his defining myth; James looked back at Europe in order to assess the nature of newly cosmopolitan Americans.

SAMUEL CLEMENS, better known by his pen name of **MARK TWAIN**, grew up in the Mississippi River frontier town of Hannibal, Missouri.

1860년에는 미국인 대다수가 농장이나 소읍에 거주했지만, 1919년에 이르러서는 인구의 절반이 대략 12개 도시로 집중되었다.

열악하고 비좁은 주거, 비위생적인 환경, 저임금(소위 “임금노예제도”), 열악한 노동환경, 부적절한 사업규제 등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했다. 노동조합이 성장하면서 노동자들의 비참한 상황은 파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농부들 역시 동부의 “금융재벌”에 맞섰다. 1860년부터 1914년까지 미국은 한때 식민지였던 소규모 농업국가에서 거대하고 근대적인 공업국가로 변모했다. 1860년에는 채무국이었지만 1914년에 이르러서는 세계에서



새뮤얼 클레멘스
(마크 트웨인)
1835-1910

가장 부유한 국가로 성장했다. 1차 세계대전 무렵의 미국은 세계 열강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산업화가 확대되면서 소외 또한 커져 갔다. 당대의 위대한 작가들—마크 트웨인과 헨리 제임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반응했다. 트웨인은 미국 남부와 서부의 시골과 개척지에서 소재를 찾았고, 제임스는 세계주의자의 대열에 새로이 동참한 미국인의 본질을 평가하기 위해 유럽을 되돌아보았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새뮤얼 클레멘스**는 미주리 주 해너빌이라는, 미시시피강 변방 지역의 도시에서 성장했다.

Ernest Hemingway said that all of American literature comes from one great book, Twain's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Early 19th-century American writers tended to be too flowery, sentimental, or ostentatious—in part because they were still trying to prove that they could write as elegantly as the English. Twain's style, based on vigorous, realistic, colloquial American speech, gave American writers a new appreciation of their national voice. Twain was the first major author to come from the interior of the country, and he captured its distinctive, humorous slang and iconoclasm.

For Twain and other American writers of the late 19th century, realism was not merely a literary technique: It was a way of speaking truth and exploding worn-out conventions. Thus it was profoundly liberating and potentially at odds with society. The most well-known example is his story of Huck Finn, a poor boy who decides to follow the voice of his conscience and help a Negro slave escape to freedom, even though Huck thinks this means that he will be damned to hell for breaking the law.

Twain's masterpiece, which appeared in 1884, is set in the Mississippi River village of St. Petersburg. The son of an alcoholic bum, Huck has just been adopted by a respectable family when his father, in a drunken stupor, threatens to kill him. Fearing for his life, Huck escapes, feigning his own death. He is joined in his escape by another outcast, the slave Jim, whose owner, Miss Watson, is thinking of selling him down the river to the harsher slavery of the deep South.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미국 문학 전체가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이라는 한 편의 대작에서 비롯되었다고 언급했다. 19세기 초의 미국 작가들은 지나치게 화려하고 감상적이며 과시적인 경향을 보였다. 영국 작가들처럼 우아하게 쓸 수 있음을 입증하려고 시도한 것이 일부 원인이었다. 트웨인의 생동감 있고 사실적이며 구어체에 바탕을 둔 문체는 미국 작가들에게 자국의 목소리를 새로이 음미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다. 트웨인은 당대의 대표 작가들 중에서 최초로 시골 오지 출신이었고, 고향의 독특하고 익살스러운 속어와 우상파괴주의를 포착해 냈다.

트웨인 그리고 19세기말의 다른 미국 작가들에게 사실주의는 문학적 기법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진실을 말하고 낡은 관습을 타파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사실주의는 지극히 해방적이었고 사회와 반목할 가능성이 있었다. 가장 유명한 예는 허클베리 핀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 가난한 소년이 흑인 노예의, 자유를 향한 탈출을 돕는다. 그렇게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파멸을 맞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양심의 목소리를 따르기로 결심한다.

1884년에 발표된 대표작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세인트 피터스버그라는, 미시시피 강 유역의 마을을 배경으로 한다. 술주정뱅이 망나니의 아들인 허클베리 핀은 한 평판 좋은 가정으로 입양되지만 술로 인사불성이 된 아버지가 나타나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허클베리 핀은 죽음을 가장한 채 탈출한다. 도중에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버림받은 신세인 흑인 노예 짐과 합세한다.

Huck and Jim float on a raft down the majestic Mississippi, but are sunk by a steamboat, separated, and later reunited. They go through many comical and dangerous shore adventures that show the variety, generosity, and sometimes cruel irrationality of society. In the end, it is discovered that Miss Watson had already freed Jim, and a respectable family is taking care of the wild boy Huck. But Huck grows impatient with civilized society and plans to escape to “the territories”—Indian lands.

The ending gives the reader another version of the classic American “purity” myth: the open road leading to the pristine wilderness, away from the morally corrupting influences of “civilization.” James Fenimore Cooper’s novels, Walt Whitman’s hymns to the open road, William Faulkner’s *The Bear*, and Jack Kerouac’s *On the Road* are other literary examples.



Henry James
1843-1916

HENRY JAMES once wrote that art, especially literary art, “makes life, makes interest, makes importance.” James’s fiction is the most highly conscious, sophisticated, and difficult of its era. James is noted for his “international theme”—that is,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naïve Americans and cosmopolitan Europeans.

짐은 주인인 윗슨 양이 남부의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훨씬 가혹한 노예상에게 그를 팔아 버릴 생각을 하자 도망친 것이었다. 허클베리 핀과 짐은 뗏목을 타고 장대한 미시시피 강을 표류하다가 한 증기선에 의해 뗏목이 가라앉으면서 서로 헤어졌다가 이후 재회한다. 두 사람은 강변에서 희극적이고 위험한 모험을 수 차례 겪게 되는데, 이를 통해 사회의 다양성, 관용 그리고 때로는 잔인한 불합리성이 드러난다. 중국에는 윗슨 양이 짐을 이미 해방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한 평판 좋은 가정의 야생소년 허클베리 핀을 돌보게 된다. 그러나 허클베리 핀은 문명화된 사회를 견디지 못하고 인디언 땅의 “영토”로 탈출할 계획을 한다.

소설의 결말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문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때문지 않은 황야로 열린 길이라는, 고전적인 미국식 “순수” 신화의 또 다른 모습을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의 소설들, 열린 길에 대한 월트 휘트먼의 찬가들, 윌리엄 포크너의 『곰(The Bear)』, 그리고 잭 케루악의 『노상(On the Road)』 역시 그러한 신화에 대한 문학적 전형이다.



헨리 제임스
(1843-1916)

헨리 제임스는 예술, 특히 문학에 예술이 “인생을 만들고, 관심을 만들며, 중요성을 만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제임스의 소설은 당대의 작품들 가운데 지극히 의식적이고 정교하며 난해하다. 그는 “국제적인 주제”, 다시 말해 순진한 미국인과 세계주의적인 유럽인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다룬 것으로 유명하다.

What his biographer Leon Edel calls James's first, or "international," phase encompassed such works as *The American* (1877), *Daisy Miller* (1879), and a masterpiece, *The Portrait of a Lady* (1881). In *The American*, for example, Christopher Newman, a naïve but intelligent and idealistic self-made millionaire industrialist, goes to Europe seeking a bride. When her family rejects him because he lacks an aristocratic background, he has a chance to revenge himself; in deciding not to, he demonstrates his moral superiority.

James's second period was experimental. He exploited new subject matters—feminism and social reform in *The Bostonians* (1886) and political intrigue in *The Princess Casamassima* (1885). In his third, or "major," phase James returned to international subjects, but treated them with increasing sophistication and psychological penetration. The complex and almost mythical *The Wings of the Dove* (1902), *The Ambassadors* (1903) (which James felt was his best novel), and *The Golden Bowl* (1904) date from this major period. If the main theme of Twain's work is the often humorous difference between pretense and reality, James's constant concern is perception. In James, only self-awareness and clear perception of others yields wisdom and self-sacrificing love.

전기작가 리온 에들이 제임스의 첫 번째 혹은 “국제적인” 시기라고 일컫는 시기에 해당하는 작품들로는 『미국인(The American)』(1877), 『데이지 밀러(Daisy Miller)』(1879), 그리고 제임스의 대표작 『어떤 여인의 초상(The Portrait of a Lady)』(1881) 등이 있다. 예컨대 『미국인』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뉴먼은 순진하지만 지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자수성가형 백만장자 기업가인데, 신붓감을 구하러 유럽으로 간다. 귀족 집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성의 가족이 그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뉴먼은 양갈음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복수하지 않기로 결심함으로써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입증한다.

제임스의 두 번째 시기는 실험적이었다. 『보스턴 사람들(The Bostonians)』(1886)에서의 페미니즘과 사회 개혁, 그리고 『카사마시마 공작부인(The Princess Casamassima)』(1885)에서의 정치적 음모 등 제임스는 새로운 주제들을 탐구했다. 세 번째 혹은 “대표적인” 시기의 제임스는 국제적인 주제로 돌아왔지만, 훨씬 정교하고 심리적 통찰력이 강화된 방식으로 다루었다. 이 시기의 작품들로는 복잡하고 신화에 가까운 『비둘기의 날개(The Wings of the Dove)』(1902), 본인의 소설들 중 최고의 작품이라고 작가 자신이 꼽은 『사자(使者)들(The Ambassadors)』(1903), 그리고 『황금의 잔(The Golden Bowl)』(1904) 등이 있다. 트웨인의 주제가 허위와 실제 사이의 종종 익살스러운 차이라면, 제임스의 한결 같은 관심사는 인식이었다. 제임스에게는 자기인식과 타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서만 지혜와 헌신적인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었다.

MODERNISM AND EXPERIMENTATION

Many historians have characterized the period between the two world wars as the United States' traumatic "coming of age," despite the fact that U.S. direct involvement was relatively brief (1917-1918) and its casualties many fewer than those of its European allies and foes. Shocked and permanently changed, Americans soldiers returned to their homeland, but could never regain their innocence. Nor could soldiers from rural America easily return to their roots. After experiencing the world, many now yearned for a modern, urban life.

In the postwar "big boom," business flourished, and the successful prospered beyond their wildest dreams. For the first time, many Americans enrolled in higher education—in the 1920s college enrollment doubled. The middle class prospered; Americans began to enjoy the world's highest national average income in this era.

Americans of the "Roaring Twenties" fell in love with modern entertainments. Most people went to the movies once a week. Although Prohibition—a nationwide ban on the sale of alcohol instituted through the 18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began in 1919, illegal "speakeasies" (bars) and nightclubs proliferated, featuring jazz music, cocktails, and daring modes of dress and dance. Dancing, moviegoing, automobile touring, and radio were national crazes.

모더니즘과 실험

다수의 역사학자들이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을 미국의 충격적인 "성인식" 기간으로 특징지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직접적인 참전 기간은 비교적 짧았고(1817-1918) 사상자 수도 유럽의 연합군이나 적군보다 훨씬 적었다. 충격에 휩싸이고 영구적으로 변화된 미국 병사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자신들의 순수함을 되찾을 수 없었다. 아울러 미국 시골 지역 출신의 병사들은 자신들의 뿌리로 복귀할 수 없었다. 세상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근대적이고 도시적인 삶을 갈망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전후(戰後)의 "대호황" 속에서 기업은 번창했고 성공한 사람들은 상상 이상의 번영을 누렸다. 사상 최초로 다수의 미국인들이 고등교육을 받았다. 1920년대에는 대학 신입생 수가 두 배로 증가했다. 중산층은 번영했고, 미국인들은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국민평균소득을 만끽했다.

"떠들썩한 20년대"의 미국인들은 현대적 여흥에 빠져들었다. 대다수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영화관에 갔다. 미국 수정헌법 제18조에 따라 주류 판매를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금주법이 1919년부터 시행되었지만, 플래퍼(flapper) 드레스를 입었고, 1920년 통과된 수정헌법 제19조에 따라 투표권을 자랑스레 행사하게 되었다.

American women, in particular, felt liberated. They cut their hair short (“bobbed”), wore short “flapper” dresses, and gloried in the right to vote assured by the 19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passed in 1920. They boldly spoke their mind and took public roles in society.

In spite of this prosperity, Western youths on the cultural “edge” were a state of intellectual rebellion, angry and disillusioned with the savage war, as well as the older generation they held responsible. Ironically, difficult postwar economic conditions in Europe allowed Americans with dollars—like writers F. Scott Fitzgerald, Ernest Hemingway, Gertrude Stein, and Ezra Pound—to live abroad handsomely on very little money, and to soak up the postwar disillusionment, as well as other European intellectual currents, particularly Freudian psychology and to a lesser extent Marxism.

Numerous novels, notably Hemingway’s *The Sun Also Rises* (1926) and Fitzgerald’s *This Side of Paradise* (1920), evoke the extravagance and disillusionment of what American expatriate writer Gertrude Stein dubbed “the lost generation.” In T.S. Eliot’s influential long poem “*The Waste Land*” (1922), Western civilization is symbolized by a bleak desert in desperate need of rain (spiritual renewal).

불법적인 주류밀매점(speakeasy)과 나이트클럽이 도처에 생겨나 재즈 음악을 연주하고 컵테일을 판매했으며 사람들은 과감한 복장과 춤을 즐겼다. 춤추기, 영화 감상, 자동차 여행, 라디오 청취가 전국적으로 유행했다. 특히 미국 여성들은 해방된 기분을 느꼈다. 단발머리(bobbed)를 한 채 짧은 여성들은 속마음을 대담하게 표현했고 사회에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같은 번영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가장자리”에 있던 서구 젊은이들은 야만스러운 전쟁과 이를 일으킨 기성세대에 격분했고 환멸을 느끼면서 지적인 반항 상태에 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럽의 전후 경제가 어렵자 달러화를 보유한 미국인들—F. 스코트 피츠제럴드, 어니스트 헤밍웨이, 거트루드 스타인, 에즈라 파운드 등의 작가들처럼—은 아주 적은 돈으로도 해외에서 넉넉하게 지냈고, 전후의 환멸, 그 밖에 유럽의 지적 동향, 특히 프로이트 심리학과 어느 정도의 마르크스주의를 흡수할 수 있었다.

다수의 소설 작품, 특히 헤밍웨이의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The Sun Also Rises*)』(1926)와 피츠제럴드의 『낙원의 이쪽(*This Side of Paradise*)』(1920)은 해외에 거주했던 미국 작가 거트루드 스타인의 표현처럼 “잃어버린 세대”의 무절제와 환멸감을 환기시켰다. T.S. 엘리엇의 대표적 장시 「황무지(*The Waste Land*)」(1922)에서 서구 문명은 비(정신적 재생)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황량한 사막으로 상징화된다.

Modernism

The large cultural wave of Modernism, which emerged in Europe, and then spread to the United States in the early years of the 20th century, expressed a sense of modern life through art as a sharp break from the past. As modern machinery had changed the pace, atmosphere, and appearance of daily life in the early 20th century, so many artists and writers, with varying degrees of success, reinvented traditional artistic forms and tried to find radically new ones—an aesthetic echo of what people had come to call “the machine age.”



T.S. Eliot
(1888-1965)

THOMAS STEARNS ELIOT received the best education of any major American writer of his generation at Harvard College, the Sorbonne, and Oxford University. He studied Sanskrit and Oriental philosophy, which influenced his poetry. Like his friend, the poet Ezra Pound, he went to England early and became a towering figure in the literary world there. One of the most respected poets of his day, his modernist, seemingly illogical or abstract iconoclastic poetry had revolutionary impact.

In “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 (1915), the ineffectual, elderly Prufrock thinks to himself that he has “measured out his life in coffee spoons”—the image of the coffee spoons reflecting a humdrum existence and a wasted lifetime.

모더니즘

유럽에서 출발하여 1920년대 초 미국으로 퍼져간 모더니즘이라는 거대한 물결은 과거와의 현격한 단절을 위해 예술을 도구로 사용하여 근대적 삶을 표현했다. 근대식 기계장치의 발달로 1920년대 초 일상생활의 보폭과 환경과 외양이 바뀌면서 수많은 예술가와 작가들이 다양한 정도의 성공을 통해 전통적인 예술 형식을 개혁하고 극단적으로 새로운 형식을 추구했다. 이는 소위 “기계 시대”의 미학적 반향이었다.



T.S. 엘리엇
(1888-1965)

토머스 스타먼 엘리엇은 당대의 미국 대표 작가들 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하버드 칼리지, 소르본 대학,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전공한 산스크리트어와 동양철학은 그의 시에 영향을 주었다. 친구이자 시인인 에즈라 파운드와 마찬가지로 엘리엇은 초기에 영국으로 건너가 그곳 문학계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당대에 최고로 존경받던 시인 중 하나로서 엘리엇은, 비논리적이거나 추상적으로 보이며 우상타파적인 모더니즘 시 작품들을 통해 혁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J. 앨프리드 프루프록의 사랑 노래(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1915)에서는 무기력한 초로의 프루프록이 자신의 “인생을 커피 스푼으로 재 왔다”고 생각한다.

The famous beginning of Eliot's "Prufrock" invites the reader into tawdry urban alleyways that, like modern life, offer no answers to the questions of life:

*Let us go then, you and I,
When the evening is spread out against the sky
Like a patient etherized upon a table....*

Similar imagery pervades "The Waste Land" (1922), which echoes Dante's "Inferno" to evoke London's thronged streets around the time of World War I:

*Under the brown fog of a winter dawn,
A crowd flowed over London Bridge, so many
I had not thought death had undone so many...*



Robert Frost
(1874-1963)

ROBERT LEE FROST was born in California, but raised on a farm in the northeast until the age of 10. Like Eliot and Pound, he went to England, attracted by new movements in poetry there. He wrote of traditional farm life in New England (part of the northeastern United States), appealing to a nostalgia for the old ways.

커피 스푼이라는 이미지는 단조로운 존재와 낭비된 인생을 반영한다. 이 시의 유명한 도입부는 현대적 삶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도시의 천박한 골목길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그럼 가세나, 그대와 나,
수술대 위에 마취된 환자처럼
저녁이 하늘을 배경으로 널브러져 있을 때.....*

단테의 「지옥편(Inferno)」이 연상되는 「황무지(The Wasteland)」(1922)에서도 비슷한 이미지가 도처에 존재함으로써 1차 세계대전 무렵 북적거리는 런던 거리의 이미지를 환기시킨다.

*겨울 새벽의 갈색 안개 속에서,
군중이 런던 교 위로 흘러간다, 그렇게나 많이
나는 죽음이 그렇게나 많이 몰락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로버트 프로스트
(1874-1963)

로버트 리 프로스트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지만 10살이 될 때까지 북동부에 위치한 농가에서 자랐다. 새로운 시작(詩作) 운동에 매혹된 프로스트는 엘리엇이나 파운드처럼 영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옛 방식에 대한 향수에 호소하며 뉴잉글랜드(미 북동부의 일부)에서의 전통적 농경 생활에 관한 작품을 썼다.

His subjects are universal—apple picking, stone walls, fences, country roads. Although his approach was lucid and accessible, his work is often deceptively simple. Many poems suggest a deeper meaning. For example, a quiet snowy evening by an almost hypnotic rhyme scheme may suggest the not entirely unwelcome approach of death. From: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1923):

*Whose woods these are I think I know.
His house is in the village, though;
He will not see me stopping here
To watch his woods fill up with snow.*



F. Scott Fitzgerald
1896-1940

Although American prose between the wars experimented with viewpoint and form, Americans wrote more realistically, on the whole, than did Europeans. The importance of facing reality became a dominant theme in the 1920s and 1930s: Writers such as F. Scott Fitzgerald and the playwright Eugene O’Neill repeatedly portrayed the tragedy awaiting those who live in flimsy dreams.

FRANCIS SCOTT KEY FITZGERALD’S life resembles a fairy tale. During World War I, Fitzgerald enlisted in the U.S. Army and fell in love with a rich and beautiful girl, Zelda Sayre, who lived near Montgomery, Alabama, where he was stationed.

프로스트의 소재는 사과 줍기, 돌담, 울타리, 시골길 등 보편적인 것이었다. 그의 접근법은 명쾌하고 이해하기 쉬웠지만, 겉보기와 달리 단순한 작품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시 작품에서 그는 훨씬 심오한 의미를 제시했다. 예컨대 최면술에 가까운 암운으로 묘사된, 고요하고 눈 내리는 저녁은 반드시 달갑지 않지만은 많은 죽음의 도래를 시사할 수 있다. 다음은 「눈 내리는 저녁 숲에 들러서(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1923)의 일부이다.

*이게 누구의 숲인지 나는 알 듯하다.
하지만 그의 집은 마을에 있지.
그는 모르리라, 내가 이곳에 들러서
그의 숲이 눈으로 가득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음을.*



F. 스콧 피츠제럴드
1896-1940

양차대전의 사이에 미국의 산문 작품들은 시점과 형식의 실험을 모색했지만, 미국 작가들은 유럽 작가들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사실적인 작품을 썼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현실 직면의 중요성이 지배적인 주제로 자리잡았다. F. 스콧 피츠제럴드와 극작가 유진 오닐과 같은 작가들은, 허망해지기 쉬운 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비극을 반복적으로 묘사했다.

프랜시스 스콧 키 피츠제럴드의 삶은 동화를 닮았다. 1차 세계대전 기간에 피츠제럴드는 미 육군에 입대했고, 주둔지인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근처에 살던 젤다 세이어라는, 부유하고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

After he was discharged at war's end, he went to seek his literary fortune in New York City in order to marry her.

His first novel, *This Side of Paradise* (1920), became a best-seller, and at 24 they married. Neither of them was able to withstand the stresses of success and fame, and they squandered their money. They moved to France to economize in 1924, and returned seven years later. Zelda became mentally unstable and had to be institutionalized; Fitzgerald himself became an alcoholic and died young as a movie screenwriter.

Fitzgerald's secure place in American literature rests primarily on his novel *The Great Gatsby* (1925), a brilliantly written, economically structured story about the American dream of the self-made man. The protagonist, the mysterious Jay Gatsby, discovers the devastating cost of success in terms of personal fulfillment and love. More than any other writer, Fitzgerald captured the glittering, desperate life of the 1920s.



Ernest Hemingway
1899-1961

Few writers have lived as colorfully as **ERNEST HEMINGWAY**, whose career could have come out of one his adventurous novels. Like Fitzgerald, Dreiser, and many other fine novelists of the 20th century, Hemingway came from the U.S. Midwest. He volunteered for an ambulance unit in France during World War I, but was wounded and hospitalized for six months.

전쟁이 끝나자 제대한 그는 세이어와 결혼하기 위해 문학적 행운을 추구하며 뉴욕 시로 갔다.

피츠제럴드의 첫 번째 소설 『낙원의 이쪽』(1920)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4세의 나이에 두 사람은 결혼했다. 그러나 부부 어느 쪽도 성공과 명예에 따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고, 부부는 재산을 흥청망청 써버렸다. 1924년 피츠제럴드 부부는 절약하기 위해 프랑스로 이주했다가 7년 후에 귀국했다. 아내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피츠제럴드 자신은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영화 대본 작가로 활동하다가 요절했다.

피츠제럴드는 일차적으로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1925)를 통해 미국 문학계에서 기반을 다졌다. 자수성가형 인물이라는, 미국적인 꿈을 다룬 이 소설은 절제된 형식으로 구성된 명작이다. 신비에 싸인 주인공 제이 개츠비는 개인적 성취와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성공의 통렬한 대가를 발견한다. 다른 어떤 작가들보다도 피츠제럴드는 1920년대의 험란하고 절망적인 삶을 효과적으로 포착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1899-1961

어니스트 헤밍웨이처럼 다채로운 삶을 보낸 작가도 드물다. 그의 이력은 자신의 모험소설들 중 하나에서 나올 법한 것이었다. 피츠제럴드, 드레이서, 그 밖에 20세기의 여러 뛰어난 소설가들과 마찬가지로 헤밍웨이는 미국 중서부 출신이다. 1차 세계대전 기간에 헤밍웨이는 프랑스에서 야전병원에 자원했지만, 부상을 당해 6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After the war, as a war correspondent based in Paris, he met expatriate American writers Sherwood Anderson, Ezra Pound, F. Scott Fitzgerald, and Gertrude Stein. Stein, in particular, influenced his spare style.

After his novel, *The Sun Also Rises* (1926), brought him fame, he continued to work as a journalist, covering the Spanish Civil War, World War II, and the fighting in China in the 1940s. On a safari in Africa, he was injured when his small plane crashed; still, he continued to enjoy hunting and sport fishing, activities that inspired some of his best work. *The Old Man and the Sea* (1952), a short, poetic novel about a poor, old fisherman whose huge fish, caught in the open ocean, is devoured by sharks, won him the Pulitzer Prize in 1953; the next year he received the Nobel Prize. Discouraged by a troubled family background, illness, and the belief that he was losing his gift for writing, Hemingway shot himself to death in 1961. Hemingway is arguably the most popular American novelist. His sympathies are basically apolitical and humanistic, and in this sense he is universal.

Like Fitzgerald, Hemingway became a spokesman for his generation. But instead of painting its fatal glamour as did Fitzgerald, who never fought in World War I, Hemingway wrote of war, death, and the “lost generation” of cynical survivors. His characters are not dreamers, but tough bullfighters, soldiers, and athletes. If intellectual, they are deeply scarred and disillusioned.

전쟁이 끝난 뒤, 당시 파리 주재 전쟁 특파원으로 있던 그는 셔우드 앤더슨, 에즈라 파운드, F. 스콧 피츠제럴드, 거트루드 스타인 등의 해외 미국 작가들을 만났다. 특히 스타인은 헤밍웨이의 간결한 문체에 영향을 주었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1926)로 유명해진 헤밍웨이는 기자로서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스페인 내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1940년대 중국 국공내전을 취재했다. 아프리카로 사냥 여행을 떠난 그는 경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부상당했다. 그럼에도 헤밍웨이는 일부 대표작들에 영감을 불러 넣은 활동인 사냥과 스포츠 낚시를 계속해서 즐겼다. 『노인과 바다(The Old Man and the Sea)』(1952)는 짧고 시적인 소설로서, 한 가난한 낚시꾼 노인이 대양에서 잡은 거대한 물고기가 상어들에게 게걸스레 잡아 먹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으로 헤밍웨이는 1953년에 풀리처상을 수상했고, 이듬해에는 노벨상을 받았다. 가족 문제, 질병, 그리고 작가로서의 재능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에 낙담한 헤밍웨이는 1961년 엽총으로 자살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헤밍웨이는 가장 유명한 미국 소설가이다. 그의 정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하고 인본주의적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헤밍웨이는 보편적이다.

피츠제럴드와 마찬가지로 헤밍웨이는 그가 속한 세대의 대변인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의 참전 경험이 없는 피츠제럴드처럼 동 세대의 치명적 매력을 묘사하는 것 대신, 헤밍웨이는 전쟁, 죽음, 그리고 냉소적인 생존자들의 “잃어버린 세대”에 관한 작품을 썼다. 헤밍웨이의 인물들은 몽상가가 아니라 거친 투우사, 군인, 운동선수들이다. 설명 지적인 인물일지라도 깊은 상처를 지닌 채 환멸감을 느낀다.

His hallmark is a clean style devoid of unnecessary words. Often he uses understatement: In *A Farewell to Arms* (1929) the heroine dies in childbirth saying “I’m not a bit afraid. It’s just a dirty trick.” He once compared his writing to icebergs: “There is seven-eighths of it under water for every part that shows.”

Born to an old southern family, **WILLIAM HARRISON FAULKNER** was raised in Oxford, Mississippi, where he lived most of his life. Faulkner re-creates the history of the land and the various races who have lived on it. An innovative writer, Faulkner experimented brilliantly with narrative chronology, different points of view and voices (including those of outcasts, children, and illiterates), and a rich and demanding baroque style, built of extremely long sentences.

The best of Faulkner’s novels include *The Sound and the Fury* (1929) and *As I Lay Dying* (1930), two modernist works experimenting with viewpoint and voice to probe southern families under the stress of losing a family member; *Light in August* (1932), about complex and violent relations between a white woman and a black man; and *Absalom, Absalom!* (1936), perhaps his finest, about the rise of a self-made plantation owner and his tragic fall.



William Faulkner
1897-1962



윌리엄 포크너
1897-1962

헤밍웨이의 특징은 불필요한 어구가 없는, 깔끔한 문체이다. 아올러 억제된 표현(understatement)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무기여 잘 있거라(A Farewell to Arms)』(1939)에서 여주인공은 출산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죽는다.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그저 비열한 속임수인 거예요.” 헤밍웨이는 자신의 글쓰기를 방산에 비유한 적이 있다. “보이는 부분마다 나머지 8분의 7은 바다 밑에 있다.”

유서 깊은 남부 집안에서 태어난 윌리엄 해리슨 포크너는 미시시피 주 옥스퍼드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거의 대부분의 일생을 보냈다. 포크너는 그곳의 토지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다양한 민족들에 대한 역사를 재현한다. 혁신적인 작가였던 포크너는 서사적 연대기, 다양한 시점과 목소리(추방자, 아동, 문맹자 포함), 그리고 극단적으로 긴 문장으로 구성된, 풍부하고 엄격한 바로크 형식 등 재기 넘치는 실험을 전개했다.

포크너의 대표작들로는 『음향과 분노(The Sound and the Fury)』(1929)와 『임종의 자리에 누워서(As I Lay Dying)』(1930) 등이 있다. 모더니즘에 바탕을 둔 이들 작품은 가족 구성원의 상실에 따른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는 남부 가족들을 고찰하기 위해 시점과 목소리의 실험을 전개한다. 『8월의 햇빛(Light in August)』(1932)은 백인 여성과 흑인 남성의 복잡하고 폭력적인 관계를 다룬 작품이며, 『압살롬, 압살롬!(Absalom, Absalom!)』(1936)은 포크너의 작품들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소설로서, 자수성가형 농장 소유주와 그의 비극적 몰락에 관한 작품이다.

20th-century American Drama

American drama imitated English and European theater until well into the 20th century. Not until the 20th century would serious American plays attempt aesthetic innovation.

EUGENE O'NEILL is the great figure of American theater. His numerous plays combine enormous technical originality with freshness of vision and emotional depth. O'Neill's earliest dramas concern the working class and poor; later works explore subjective realms, and underscore his reading in Freud and his anguished attempt to come to terms with his dead mother, father, and brother.

His play *Desire Under the Elms* (1924) recreates the passions hidden within one family. His later plays include the acknowledged masterpieces *The Iceman Cometh* (1946), a stark work on the theme of death, and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1956)—a powerful, extended autobiography in dramatic form focusing on his own family and their physical and psychological deterioration, as witnessed in the course of one night.



Eugene O'Neill
1888 - 1953

20세기 미국 희곡

미국의 극문학은 20세기로 진입할 때까지 영국과 유럽의 극문학을 모방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심각한 작품들을 통해 미학적 혁신을 시도했다.

유진 오닐은 미국의 위대한 극작가이다. 수많은 희곡 작품에서는 기법상의 뛰어난 독창성과 비전의 참신성 그리고 정서적 깊이가 결합되어 있다. 오닐의 초기작들은 노동계급과 가난한 사람들을 다룬다. 주관적인 영역을 탐구하는 후기작들은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대한 작가의 지식이 강조되고, 사별한 부모와 동생과 화해하기 위한, 괴로운 시도가 부각된다.



유진 오닐
1888 - 1953

『느릅나무 밑의 욕망(*Desire Under the Elms*)』(1924)은 한 가정의 내부에 숨겨진 열망을 재현한다. 이후 발표된 그의 대표작 『얼음장수 오다(*The Iceman Cometh*)』(1946)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적나라하게 다루며, 『밤으로의 긴 여로(*Long Day's Journey into Night*)』(1956)는 강렬하고 방대한 자전적 작품으로, 작가 자신의 가족과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타락에 초점을 맞춘 채 하룻밤 사이에 목격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THE FLOWERING OF THE INDIVIDUAL

The Great Depression of the 1930s had virtually destroyed the American economy. World War II revived it. The United States became a major force on the world stage, and post-World-War-II Americans enjoyed unprecedented personal prosperity and individual freedom.

Expanded higher education and the spread of television throughout America after World War II made it possible for ordinary people to obtain information on their own and to become more sophisticated. A glut of consumer conveniences and access to large, attractive suburban houses made middle-class families more autonomous. Widespread theories of Freudian psychology emphasized the origins and the importance of the individual mind. The birth control “pill” liberated women from rigid subservience to biological norms.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many ordinary people could lead vastly satisfying lives and assert their personal worth.

The rise of mass individualism—as well as the civil rights and antiwar movements of the 1960s—empowered previously muted voices. Writers asserted their deepest inner nature, as well as personal experience, and the importance of the individual experience implied the importance of the group to which it was linked.

개인주의의 만개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는 거의 파산 상태에 빠졌다가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부활했다.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주요 열강 중 하나로 자리잡았고, 전후의 미국인들은 전례 없는 개인적 번영과 자유를 만끽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고등교육이 확대되고 TV가 미국 전역으로 보급되면서 일반인들은 스스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훨씬 세련되어 갔다. 소비자를 위한 편의용품들이 넘쳐나고, 교외에 위치한 매력적인 대저택에 살게 되면서 중산층 가정들은 더욱 자율적인 삶을 누리게 되었다. 널리 보급된 프로이트 심리학 이론들은 개인 정신의 근원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피임약”은 생물학적 규범의 엄격한 종속에서 여성을 해방시켰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수의 일반인이 지극히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개인적 가치를 역설하게 되었다.

대중적 개인주의의 부상—아울러 1960년대의 민권운동과 반전운동—으로 과거 침묵했던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작가들은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심오한 내적 본성을 역설했고, 개인적 경험의 강조는 개인이 결부된 집단의 중요성을 의미했다.

Homosexuals, feminists, and other marginalized voices proclaimed their stories. Jewish American and black American writers found wide audiences for their variations of the American dream, or nightmare. Writers of Protestant background, such as John Cheever and John Updike, discussed the impact of postwar culture on lives like theirs. Some modern and contemporary writers are still placed within older traditions, such as realism. Some may be described as classicists, others as experimental, stylistically influenced by the ephemera of mass culture, or by philosophies such as existentialism, or socialism. Many are more easily grouped according to ethnic background or region. However, on the whole, modern writers always



Sylvia Plath
1932-1963

lay claim to the worth of the individual identity.

SYLVIA PLATH lived an outwardly exemplary life, attending Smith College on scholarship, graduating first in her class, and winning a Fulbright grant to Cambridge University in England. There she met her charismatic husband-to-be, poet Ted Hughes, with whom she had two children, and settled in a country house in England.

동성애자, 페미니스트, 그 밖에 사회의 변방에 위치한 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유대계 미국인과 흑인 작가들은 미국적인 꿈 혹은 악몽을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했다. 존 치버와 존 업다이크 같은 청교도 출신 작가들은 전쟁 이후의 문화가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논했다. 일부 현대 작가들은 여전히 사실주의와 같은 과거의 전통에 속했다. 한편 어떤 작가들은 고전주의자로 설명되었고, 실존주의나 사회주의 등의 철학 또는 대중문화의 단명성에 문체적 영향을 받은 실험적 작가들도 있었다. 다수의 작가들은 민족이나 종교에 따라 훨씬 쉽게 분류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현대 작가들은 항상 개인적 정체성의 가치를 주장했다.



실비아 플래스
1932-1963

실비아 플래스는 외견상 모범적인 삶을 영위했다. 장학금을 받고 스미스 칼리지에 입학하여 수석으로 졸업했고,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미래의 남편이자 카리스마 넘치는 시인 테드 휴스를 만났다. 플래스는 아이 둘을 출산했고 부부는 영국의 한 시골 집에 정착했다.

Beneath the fairy-tale success festered unresolved psychological problems evoked in her highly readable novel *The Bell Jar* (1963). Some of these problems were personal, while others arose from her sense of repressive attitudes toward women in the 1950s. Among these were the beliefs—shared by many women themselves—that women should not show anger or ambitiously pursue a career, and instead find fulfillment in tending their husbands and children. Professionally successful women like Plath felt that they lived a contradiction.

Plath's storybook life crumbled when she and Hughes separated and she cared for the young children in a London apartment during a winter of extreme cold. Ill, isolated, and in despair, Plath worked against the clock to produce a series of stunning poems before she committed suicide by gassing herself in her kitchen. These poems were collected in the volume *Ariel* (1965), two years after her death. The poet Robert Lowell, who wrote the introduction, noted her poetry's rapid development from the time she had attended his poetry classes in 1958.

Plath's early poetry is well crafted and traditional, but her late poems exhibit a desperate bravura and proto-feminist cry of anguish. In "The Applicant" (1966), Plath exposes the emptiness in the current role of wife (who is reduced to an inanimate "it"):

동화와 같은 성공의 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가 꿈아 있었다. 이는 『벨 자(*The Bell Jar*)』(1963)라는 제목의 대단히 읽기 쉬운 소설에서 환기되고 있다. 이들 문제 중 일부는 개인적인 것이었지만, 다른 문제들은 1950년대 여성에 대한 억압적 태도에 기인한다. 다수의 여성 스스로조차 공유하는 이들 태도에는 여성이 분노를 표출하거나 직업에서의 성공을 야심 차게 추구하면 안 되고,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함으로써 성취감을 느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포함된다. 플래스처럼 직업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은 자신들이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다.

플래스의 이야기책 같은 삶은 그녀가 휴스와 이혼하고 지독하게 추운 겨울 동안 런던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게 되면서 허물어졌다. 병으로 시달리며 고립된 상태에서 절망에 빠진 플래스는 시간과 다투며 일련의 놀랄 만큼 아름다운 시들을 쓰다가 부엌에서 가스로 질식사하여 자살했다. 플래스가 생전에 썼던 시들은 그녀가 사망한 지 2년 후 『에어리얼(*Ariel*)』(1965)이라는 선집에 수록되었다. 서문은 시인 로버트 로웰이 썼는데, 그는 1958년 플래스가 자신의 시 창작 강의를 수강하던 때부터 그녀의 시들이 급속하게 발전했다고 언급했다.

플래스의 초기 시 작품들은 정교하고 전통적이지만, 후기의 시들은 절망적인 화려함과 원형적 페미니스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표출된다. 「지원자(*The Applicant*)」라는 제목의 시에서 플래스는 아내 역할의 공허함을 드러낸다. 이 작품에서 아내는 무생물인 "그것(it)"으로 축소된다.

*A living doll, everywhere you look.
It can sew, it can cook.
It can talk, talk, talk.*

The “Beat poets” emerged in the 1950s. The term “beat” variously suggests musical downbeats, as in jazz; angelical beatitude or blessedness; and “beat up” —tired or hurt. The Beats (beatniks) were inspired by jazz, Eastern religion, and the wandering life. These were all depicted in the famous novel by Jack Kerouac *On the Road*, a sensation when it was published in 1957. An account of a 1947 cross-country car trip, the novel was written in three hectic weeks on a single roll of paper in what Kerouac called “spontaneous bop prose.” The wild, improvisational style, hipster-mystic characters, and



Allen Ginsberg
1926-1997

rejection of authority and convention fired the imaginations of young readers and helped usher in the freewheeling counterculture of the 1960s.

Most of the important Beats migrated to San Francisco from America’s East Coast, gaining their initial national recognition in California. The charismatic **ALLEN GINSBERG** became the group’s chief spokesman.

*살아 있는 인형, 어디를 보더라도.
그것은 바느질할 줄 안다, 그것은 요리할 줄 안다.
그것은 말을, 말을, 말을 할 줄 안다.*

“비트 시인들”은 1950년대에 등장했다. “비트(beat)”라는 용어는 재즈 음악에서의 다운비트(downbeat), 성스러운 지복(beatitude) 혹은 축복, 그리고 ‘지치다’ 혹은 ‘다치다’라는 뜻의 ‘beat up’ 등 다양한 의미를 시사한다. 비트족(beatnik)들은 재즈와 동양 종교와 방랑 생활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들 요소는 잭 케루악의 『노상(路上)』이라는 유명한 소설에서 모두 다루어지고 있다. 1957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1947년 전국 횡단 자동차 여행을 소재로 한 이 작품은 두루마리로 된 한 장의 종이에, 케루악의 표현을 빌자면 “자연스러운 밥 재즈 형식의 산문”으로 3주간의 바쁜 일정 속에 창작되었다. 거칠고 즉흥적인 문체, 비트족이자 신비주의자인 등장인물들, 그리고 권위와 관습의 거부는 젊은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1960년대 자유분방한 반(反)문화의 도래에 일조했다.



앨런 긴스버그
1926-1997

비트족에 속하는 주요 인물들은 대다수가 미국 동해안 지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에서 초창기의 전국적인 명성을 확보했다. 카리스마 넘치는 시인인 **앨런 긴스버그**는 이들 집단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

The son of a poet father and an eccentric mother committed to Communism, Ginsberg attended Columbia University, where he became fast friends with fellow students Kerouac (1922-1969) and William Burroughs (1914-1997), whose violent, nightmarish novels about the underworld of heroin addiction include *The Naked Lunch* (1959). These three were the nucleus of the Beat movement.

Beat poetry is oral, repetitive, and immensely effective in readings, largely because it developed out of poetry readings in “underground” clubs. Some might correctly see it as a great-grandparent of the rap music that became prevalent in the 1990s. Beat poetry was the most anti-establishment form of literature in the United States, but beneath its shocking words lies a love of country. The poetry is a cry of pain and rage at what the poets see as the loss of America’s innocence and the tragic waste of it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Poems like Allen Ginsberg’s *Howl* (1956) revolutionized traditional poetry.

*I saw the best minds of my generation destroyed by
madness, starving hysterical naked,
dragging themselves through the negro streets at
dawn looking for an angry fix,
angelheaded hipsters burning for the ancient
heavenly connection to the starry dynamo in the
machinery of night...*

시인인 부친과 공산주의자인 괴짜 모친 사이에 태어난 긴스버그는 컬럼비아 대학 재학 당시, 동창인 케루악(1922-1969)과 버로스(1914-1997)와 급속히 친해졌다. 헤로인 중독으로 점철된 밑바닥 사회에 대한 버로스의 폭력적이고 악몽 같은 소설로는 『벌거벗은 점심(The Naked Lunch)』(1959)이 있다. 긴스버그와 케루악과 버로스는 비트 운동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비트 시는 구두적이고 반복적이며 낭독할 때 대단히 효과적이다. 이는 “지하” 클럽에서의 시 낭독을 통해 발전했다는 사실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일부에서 비트 시를 1990년대 유행하게 된 랩 음악의 증조부 뺄로 간주하는 것도 당연하다. 비트 시는 미국에서 가장 반체제적인 문학 형식이었지만, 그 충격적인 표현들의 이면에는 애국심이 존재했다. 비트 시는 미국의 순수성 상실 그리고 인적 자원과 물질적 자원의 비극적 낭비라고 시인들이 간주한 것에 대한 분노와 고통의 울부짖음이다.

앨런 긴스버그의 『울부짖음(Howl)』(1956) 같은 작품들은 전통적인 작시법에 혁명을 일으켰다.

*나는 우리 세대 최고의 지성들이 광기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발작적으로 나체가 되어 굶주린 채,
새벽의 검둥이 거리에서 몸을 질질 끌며 무서운
마약을 찾는 것을 보았다,
밤이라는 기계장치에서 별들로 이루어진 발전기에
고대의 천상을 연관시키며 들끓어 오르는 천사
머리의 비트 족들……*



Tennessee Williams
1911-1983

TENNESSEE WILLIAMS, a native of Mississippi, was one of the more complex individuals on the American literary scene of the mid-20th century. His work focused on disturbed emotions within families—most of them southern. He was known for incantatory repetitions, a poetic southern diction, weird gothic settings, and Freudian

exploration of human emotion. One of the first American writers to live openly as a homosexual, Williams explained that the longings of his tormented characters expressed their loneliness. His characters live and suffer intensely.

Williams wrote more than 20 full-length dramas, many of them autobiographical. He reached his peak relatively early in his career—in the 1940s—with *The Glass Menagerie* (1944) and *A Streetcar Named Desire* (1949). None of the works that followed over the next two decades and more reached the level of success and richness of those two pieces.

Born in Mississippi to a well-to-do family of transplanted northerners, **EUDORA WELTY** was guided by novelists Robert Penn Warren and Katherine Anne Porter. Porter, in fact, wrote an introduction to Welty's first collection of short stories, *A Curtain of Green* (1941). Welty modeled her nuanced work on Porter, but the younger woman was more interested in the comic and grotesque.



Eudora Welty
1909-2001



테네시 윌리엄스
1911-1983

미시시피 주 토박이인 **테네시 윌리엄스**는 20세기 중반의 미국 문학계에서 가장 복합적인 인물 중 하나였다. 그의 작품은 주로 남부 가족들의 내부에 존재하는 불편한 감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윌리엄스는 흡사 주문(呪文)과도 같은 반복, 시적인 남부 방언, 기괴한 고딕식 배경, 그리고 인간의 감정에 대한 프로이트적 탐구로 유명하다. 미국 작가들 중 처음으로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윌리엄스는, 고뇌하는 등장인물들의 갈망을 통해 외로움이 표출된다고 설명했다. 그의 등장인물들은 치열한 삶과 고통을 경험한다.

윌리엄스는 스무 편 이상의 장편 희곡을 썼는데, 다수의 작품이 전기적인 내용이다. 그는 『유리동물원(The Glass Menagerie)』(1944)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A Streetcar Named Desire)』(1949)를 통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인 1940년대에 전성기를 맞았다. 이후 20여 년 동안 발표된 그 어떤 작품도 이들 두 작품의 성공과 풍부함에 도달하지 못했다.

북부에서 이주해 온 유복한 가정의 딸로 미시시피 주에서 태어난 **유도라 웰티**는 소설가 로버트 펜 워런과 캐서린 앤 포터의 문하생이었다. 포터는 웰티의 첫 번째 단편집 『초록빛 커튼(A Curtain of Green)』(1941)의 서문을 쓰기도 했다. 뉘앙스로 가득한 작품들은 포터를 전형으로 삼은 결과이지만,



유도라 웰티
1909-2001



Ralph Ellison
1914-1994

Like fellow southern writer Flannery O'Connor, Welty often took subnormal, eccentric, or exceptional characters for subjects.

Despite violence in her work, Welty's wit was essentially humane and affirmative. Her collections of stories include The

Wide Net (1943), The Golden Apples (1949), The Bride of the Innisfallen (1955), and Moon Lake (1980). Welty also wrote novels such as Delta Wedding (1946), which is focused on a plantation family in modern times, and The Optimist's Daughter (1972).

RALPH ELLISON was a midwesterner, born in Oklahoma, who studied at Tuskegee Institute in the southern United States. He had one of the strangest careers in American letters—consisting of one highly acclaimed book and little more.

The novel is *Invisible Man* (1952), the story of a black man who lives a subterranean existence in a cellar brightly illuminated by electricity stolen from a utility company. The book recounts his grotesque, disenchanting experiences. When he wins a scholarship to an all-black college, he is humiliated by whites; when he gets to the college, he witnesses the school's president spurning black American concerns. Life is corrupt outside college, too. For example, even religion is no consolation: A preacher turns out to be a criminal.



앨프 엘리슨
1914-1994

웰티는 희극적이고 기괴한 소재에 관심이 더욱 많았다. 동시대의 남부 작가 플래너리 오코너처럼 그녀는 저능하거나 영동하거나 비정상적인 인물들을 등장시켰다.

작품들에서 보이는 폭력성에도 불구하고 웰티의 위트는 그 바탕이 인간적이고 긍정적이다. 단편집으로는 『커다란 그물(The

Wide Net)』(1943), 『황금 사과(The Golden Apples)』(1949), 『이니스폴른 호(號)의 신부(The Bride of the Innisfallen)』(1955), 『달빛 호수(Moon Lake)』(1980) 등이 있다. 아울러 웰티는 현대의 농장 가족을 다룬 『델타의 결혼식(Delta Wedding)』(1946), 그리고 『낙천가의 딸(The Optimist's Daughter)』(1972) 같은 장편도 발표했다.

미국 중서부 지역 출신의 **앨프 엘리슨**은 오클라호마에서 태어나 남부 지역에 위치한 터스키기 대학에서 공부했다. 그는 미국 작가들 중에서 상당히 기이한 이력을 자랑한다. 열광적인 호응을 얻은 한 권의 소설 이외에는 별다른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다.

장편 『보이지 않는 사람(The Invisible Man)』(1952)은 전력회사에서 훔친 전기로 조명을 밝힌 지하실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흑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의 기괴하고 환멸적인 경험들을 서술한다. 흑인들만 다니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은 주인공은 백인들에게 멸시당한다. 대학에서는 흑인 관련 문제에 대학 총장이 콧방귀를 끼는 모습을 목격한다. 대학 밖의 삶 역시 부패되어 있다. 예컨대 종교조차도

The novel indicts society for failing to provide its citizens—black and white—with viable ideals and institutions for realizing them. It embodies a powerful racial theme because the “invisible man” is invisible not in himself but because others, blinded by prejudice, cannot see him for who he is.



Saul Bellow
1915-2005

Born in Canada and raised in Chicago, **SAUL BELLOW** was of Russian-Jewish background. In college, he studied anthropology and sociology, which greatly influenced his writing. He once expressed a profound debt to the American realist novelist Theodore Dreiser for his openness to a wide range of experience and his emotional engagement with it. Highly respected,

Bellow received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in 1976.

Bellow's early, somewhat grim existentialist novels include *Dangling Man* (1944), a Kafkaesque study of a man waiting to be drafted into the army, and *The Victim* (1947), about relations between Jews and Gentiles. In the 1950s, his vision became more comic: He used a series of energetic and adventurous first-person narrators in *The Adventures of Augie March* (1953)—the study of a Huck Finn-like urban entrepreneur who becomes a black marketeer in Europe—and in *Henderson the Rain King* (1959), a brilliant and exuberant serio-comic novel about a middle-aged millionaire whose unsatisfied ambitions drive him to Africa.

위안을 주지 못한다. 한 목사는 나중에 범죄자로 밝혀진다. 이

소설은 흑인과 백인을 모두 포함한 시민들이 성장할 수 있는 사상과, 그러한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를 고발한다.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타인들이 편견 때문에 제대로 못 보는 것이므로, 이 작품은 인종차별에 대한 강렬한 주제를 전달한다.



솔 벨로
1915-2005

캐나다에서 태어나 시카고에서 자란 **솔 벨로**는 러시아에서 이민 온 유대인의 아들이다. 대학 시절에 공부한 인류학과 사회학은 그의 작품들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벨로는 다양한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이에 따른 정서적 참여 의식과 관련하여 사실주의 미국 소설과 시어도어 드레이서에게 크나큰 신세를 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단한 존경을 받았던 벨로는 197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벨로의 초기작 중 암울한 실존주의 소설로는 군대 징집을 기다리는 한 남자에 대한 카프카적 고찰인 『허공에 매달린 사나이(Dangling Man)』(1944), 그리고 유대인과 이교도 사이의 관계를 다룬 『희생자(The Victim)』(1947) 등이 있다. 1950년대에는 작가의 비전이 더욱 희극적으로 변모한다. 허클베리 핀을 연상시키는 도시 기업가가 유럽에서 암거래 상인이 된다는 내용의 『오기 마치의 모험(The Adventures of Augie March)』(1953), 그리고 중년의 백만장자가 충족되지 않은 야망으로 인해 아프리카로 떠난다는, 탁월하고 생기 넘치며 진지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소설 『비의 왕 헨더슨(Henderson the Rain King)』(1959)에서 작가는 일련의 정력적이고 모험심 강한 일인칭 화자들을 채택했다.

Bellow's later works include *Herzog* (1964), about the troubled life of a neurotic English professor who specializes in the idea of the romantic self; *Mr. Sammler's Planet* (1970); *Humboldt's Gift* (1975); and the autobiographical *The Dean's December* (1982). Bellow's *Seize the Day* (1956) is a brilliant novella centered on a failed businessman, Tommy Wilhelm, who is so consumed by feelings of inadequacy that he becomes totally inadequate—a failure with women, jobs, machines, and the commodities market, where he loses all his money. Wilhelm is an example of the schlemiel of Jewish folklore—one to whom unlucky things inevitably happen.



John Cheever
1912-1982

JOHN CHEEVER often has been called a “novelist of manners.” He is also known for his elegant, suggestive short stories, which scrutinize the New York business world through its effects on the businessmen, their wives, children, and friends.

A wry melancholy and never quite quenched but seemingly hopeless desire for passion or metaphysical certainty lurks in the shadows of Cheever's finely drawn, Chekhovian tales, collected in *The Way Some People Live* (1943), *The Housebreaker of Shady Hill* (1958), *Some People, Places, and Things That Will Not Appear in My Next Novel* (1961), *The Brigadier and the Golf Widow* (1964), and *The World of Apples* (1973).

벨로의 후기작으로는 신경쇠약에 걸린 채 낭만주의 자아 사상을 전공하는 영문학 교수의 불안정한 삶을 그린 『허조그(Herzog)』 (1964), 『새틀러 씨의 혹성(Mr. Sammler's Planet)』 (1970), 『험볼트의 선물(Humbolt's Gift)』 (1975), 그리고 자전적 소설 『학장의 12월(The Dean's December)』 등이 있다. 벨로의 탁월한 중편 『현재를 즐겨라(Seize the Day)』 (1956)는 실패한 사업가 토미 윌헬름에 대한 이야기이다. 윌헬름은 자신이 부적격자라는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연애, 직장, 기계, 그리고 전 재산을 투자한 상품 시장에서 모두 실패함으로써 완벽한 부적격자로 전락하고 만다. 윌헬름은 유대교 민간설화에 등장하는, 역세계 재수없는 사람의 전형이다.



존 치버 1912-1982

존 치버는 “풍속소설가”로 일컬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그는 격조 높고 함축성 있는 단편들로 유명하다. 이들 작품은 뉴욕의 비즈니스 세계가 사업가들과 그 아내, 자녀, 친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단편집 『어떤 사람들의 인생(The Way Some People Live)』 (1943), 『셰이디 힐의 가택 침입 강도(The Housebreaker of Shady Hill)』 (1958), 『나의 다음 번 소설에는 등장하지 않을 인물과 장소와 사물들(Some People, Places, and Things That Will Not Appear in My Next Novel)』 (1961), 『준장과 골프 과부(The Brigadier and the Golf Widow)』 (1964), 사과의 세계(The World of Apples)』 (1973) 등에 수록된, 세밀하게 묘사되고 체호프적인 단편들의 이면에는 뒤틀린 우수(憂愁)와, 결코 만족하지 못한 채 가망 없어 보이는, 열정 혹은 형이상학적 확실성에 대한 욕망이 숨겨져 있다.

His titles reveal his characteristic nonchalance, playfulness, and irreverence, and hint at his subject matter. Cheever also published several novels—The Wapshot Scandal (1964), Bullet Park (1969), and Falconer (1977)—the last of which was largely autobiographical.

JOHN UPDIKE, like Cheever, is also regarded as a writer of manners with his suburban settings, domestic themes, reflections of ennui and wistfulness, and, particularly, his fictional locales on the eastern seaboard of the United States, in Massachusetts and Pennsylvania.

Updike is best known for his five Rabbit books, depictions of the life of a man—Harry “Rabbit” Angstrom—through the ebbs and flows of his existence across four decades of American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Rabbit, Run (1960) is a mirror of the 1950s, with Angstrom an aimless, disaffected young husband.

Rabbit Redux (1971)—spotlighting the counterculture of the 1960s—finds Angstrom still without a clear goal or purpose or viable escape route from the banal. In Rabbit Is Rich (1981), Harry has become a prosperous businessman during the 1970s, as the Vietnam era wanes.



John Updike
1932-

작품들의 제목은 치퍼의 특징을 이루는 태연함, 쾌활함, 그리고 불경스러움을 드러내면서 작가의 주제를 암시한다. 아울러 치퍼는 『왑쇼트 가(街)의 스캔들(The Wapshot Scandal)』 (1964), 『탄환 공원(Bullet Park)』 (1969), 자전적인 성격이 강한 『팔커너(Falconer)』 (1977) 등의 장편도 발표했다.

존 업다이크는 작품들이 교외를 배경으로 가정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권태와 우수를 반영하고, 특히 미국 동해안 지역의 매사추세츠와 펜실베이니아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치버와 마찬가지로 풍속작가로 간주된다.

업다이크는 네 편의 “래빗” 연작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해리 “래빗(토끼)” 앵스트럼의 생애를 묘사한 이들 작품은 40년간의 미국 사회사와 정치사를 거치며 주인공이 겪는 흥망성쇠를 다룬다. 『래빗, 달려라(Rabbit, Run)』 (1960)는 1950년대를 배경으로 목적 없이 불안만 가득한 젊은 남편 앵스트럼에 관한

이야기이다. 『래빗 돌아오다(Rabbit Redux)』 (1971)는 1960년대의 반(反)문화를 조명하는 작품으로, 앵스트럼은 여전히 명확한 목표나 목적이 없거나 혹은 진부한 삶에서 벗어나 탈출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래빗, 부자가 되다(Rabbit Is Rich)』 (1981)에서는



존 업다이크
1932-

The final novel, *Rabbit at Rest* (1990), glimpses Angstrom's reconciliation with life, before his death from a heart attack, against the backdrop of the 1980s.

Updike possesses the most brilliant style of any writer today, and his short stories offer scintillating examples of its range and inventiveness.



Norman Mailer
1923-

NORMAN MAILER made himself the most visible novelist of the 1960s and 1970s. Co-founder of the anti-establishment New York City weekly *The Village Voice*, Mailer publicized himself along with his political views. In his appetite for experience, vigorous style, and a dramatic public persona, Mailer follows in the tradition of Ernest Hemingway. To gain a vantage

point on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John F. Kennedy, Vietnam War protests, black liberation, and the women's movement, he constructed hip, existentialist, macho male personae (in her book *Sexual Politics*, Kate Millett identified Mailer as an archetypal male chauvinist). The irrepressible Mailer went on to marry six times and run for mayor of New York.

From such New Journalism exercises as *Miami and the Siege of Chicago* (1968), an analysis of the 1968 U.S. presidential conventions, and his compelling study about the execution of a condemned murderer, *The Executioner's Song* (1979),

1970년대 베트남전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앵스트럼이 전도유망한 사업가로 변모한다. 연작의 마지막 편인 『래빗, 영면하다(Rabbit at Rest)』(1990)는 1980년대를 배경으로 앵스트럼이 심장마비로 죽기 전에 인생과 화해하는 모습을 전달한다.

업다이크는 현대 작가들 가운데 지극히 뛰어난 문체를 자랑하며, 그의 단편들은 그 범위와 독창성 측면에서 탁월한 모범을 보여준다.



노먼 메일러 1923-

노먼 메일러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자신의 존재를 가장 뚜렷하게 부각시킨 소설가 중 하나이다. 뉴욕 시에서 발행되는 반체제 주간지 『빌리지 보이스(The Village Voice)』의 공동 발기인이기도 한 메일러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면서 스스로를 세상에 알렸다. 실제 경험, 생동감 있는 문체, 그리고 극적이고 대중적인 인물을

선호한다는 측면에서 메일러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전통을 따른다. 그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베트남전 항의 시위, 흑인 해방, 여성 운동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실존주의적이고 남성우월주의적인 히피 주인공들을 창조한다.(케이트 밀렛은 그녀의 저서 『성(性)정치학(Sexual Politics)』에서 메일러를 남성우월주의자의 전형으로 파악한다.) 감정과 행위를 억제하지 못하는 메일러는 여섯 차례 결혼했고 뉴욕 주지사 후보로 출마하기까지 했다.

1968년 미국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를 분석한 『마이애미, 그리고 시카고의 포위(Miami and the Siege of Chicago)』(1968)와 어떤 살인범의 사형 집행을 감동적으로 다룬 『사형 집행인의 노래(The Executioner's Song)』(1979)

Mailer turned to writing such ambitious, if flawed, novels as *Ancient Evenings* (1983), set in the Egypt of antiquity, and *Harlot's Ghost* (1991), revolving around the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oni Morrison
1931-

African-American novelist **Toni**

MORRISON was born in Ohio to a spiritually oriented family. She attended Howard University in Washington, D.C., and has worked as a senior editor in a major Washington publishing house and as a distinguished professor at various universities.

Morrison's richly woven fiction has gained her international acclaim. In compelling, large-spirited novels, she treats the complex identities of black people in a universal manner. In her early work *The Bluest Eye* (1970), a strong-willed young black girl tells the story of Pecola Breedlove, who is driven mad by an abusive father. Pecola believes that her dark eyes have magically become blue and that they will make her lovable. Morrison has said that she was creating her own sense of identity as a writer through this novel: "I was Pecola, Claudia, everybody."

Sula (1973) describes the strong friendship of two women. Morrison paints African-American women as unique, fully individual characters rather than as stereotypes.

등 신저널리즘 경향의 작품들을 발표하던 메일러는 고대 이집트가 배경인 『고대의 저녁(Ancient Evenings)』(1983)과 중앙정보부(CIA)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할롯의 유령(Harlot's Ghost)』(1991) 등, 비록 결함은 있을지언정 야심 만만한 작품들로 방향을 바꾸었다.



토니 모리슨
1931-

오하이오 주에서 태어난 흑인 소설가 **토니 모리슨**은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가정에서 자랐다. 그녀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하워드 대학을 졸업했고, 워싱턴 유수의 출판사에서 수석편집인으로 근무했으며 여러 대학에서 저명한 교수로 활동했다.

모리슨은 짜임새가 풍부한 소설로 국제적인 명성을 획득했다. 감동적이고 거대한 정신 세계를 제시하는 장편들에서 그녀는 흑인들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보편적인 방식으로 다룬다.

초기작 『가장 푸른 눈(The Bluest Eye)』(1970)에서는 의지력이 강한 한 흑인 소녀가 피콜라 브리드러브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 미쳐 버린 피콜라는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마술처럼 푸른 색으로 변했으니 이제는 자신이 사랑스럽게 보일 것이라고 믿는다. 모리슨은 이 작품을 통해 작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창조했다고 언급했다. "나는 피콜라였다, 클로디아였다, 모든 사람이었다."

『술라(Sula)』(1973)에서는 두 여성의 강한 우정이 묘사된다. 모리슨은 흑인 여성들을 고정관념에 따라 묘사하기보다는 개성을 완벽하게 갖춘, 독특한 인물들로 그려 낸다.

Morrison's *Song of Solomon* (1977) has won several awards. It follows a black man, Milkman Dead, and his complex relations with his family and community. *Beloved* (1987) is the wrenching story of a woman who murders her children rather than allow them to live as slaves. It employs the dreamlike techniques of magical realism in depicting a mysterious figure, *Beloved*, who returns to live with the mother who has slit her throat. *Jazz* (1992), set in 1920s Harlem, is a story of love and murder. In 1993, Morrison won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Contemporary Literature



Louise Glück
1943-

As the 20th century ended and the 21st century began, mass social and geographic mobility, the Internet, immigration, and globalization only emphasized the subjective voice in a context of cultural fragmentation. Some contemporary writers reflect a drift towards quieter, more accessible voices. For many prose writers, the region, rather than the nation, provides the defining geography.

One of the most impressive contemporary poets is LOUISE GLÜCK. Born in New York City, Glück, the U.S. poet laureate for 2003-2004, grew up with an abiding sense of guilt due to the death of a sister born before her.

모리슨은 『솔로몬의 노래(Song of Solomon)』 (1977)로 몇 개의 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밀크먼 데드라는 흑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와 그가 복잡하게 맺은 관계를 추적한다. 『빌러비드(Beloved)』 (1987)는 자식들을 노예로 살게 하느니 차라리 살해해 버리는 한 어머니의 슬픈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자신의 목을 벤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돌아온 신비로운 여인 빌러비드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마술적 사실주의의 몽환적인 기법을 사용한다. 1920년대 할렘을 배경으로 한 『재즈(Jazz)』 (1992)는 사랑과 살해에 대한 이야기이다. 1993년 모리슨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현대 문학



Louise Glück
1943-

20세기가 막을 내리고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대규모의 사회적, 지리적 이동성, 인터넷, 이민, 그리고 세계화는 오히려 문화적 파편화라는 맥락에서 주관적 목소리를 부각시키게 되었다. 일부 현대 작가들은 더욱 조용하고 접근이 용이한 목소리를 향해 흘러가는 경향을 반영한다. 다수의 산문 작가들에게는 국가보다 지역이 의미 있는 지리적 경계가 된다.

가장 인상적인 현대 시인들 중 하나는 루이스 글뤽이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계관시인으로 임명되었던 글뤽은 뉴욕 시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언니의 죽음에 따른 지속적인 죄책감을 느끼며 성장했다.

At Sarah Lawrence College and Columbia University, she studied with poets Leonie Adams and Stanley Kunitz. Much of her poetry deals with tragic loss. Each of Glück's books attempts new techniques, making it difficult to summarize her work.

In Glück's memorable *The Wild Iris* (1992), different kinds of flowers utter short metaphysical monologues. The book's title poem, an exploration of resurrection, could be an epigraph for Glück's work as a whole. The wild iris, a gorgeous deep blue flower growing from a bulb that lies dormant all winter, says: "It is terrible to survive / as consciousness / buried in the dark earth."

*From the center of my life came
a great fountain, deep blue
shadows on azure seawater.*

The poetry of **BILLY COLLINS** is refreshing and exhilarating. Collins uses everyday language to record the myriad details of everyday life, freely mixing quotidian events (eating, doing chores, writing) with cultural references. His humor and originality have brought him a wide audience. Though some have faulted Collins for being too accessible, his unpredictable flights of fancy open out into mystery.



Billy Collins
1941-

새러 로런스 칼리지와 컬럼비아 대학에서 글뤽은 시인 리오니 애덤스 그리고 스탠리 커니츠와 함께 공부했다. 그녀의 시는 대부분 비극적 상실감을 다룬다. 발표되는 시집마다 새로운 기법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녀의 작품을 한 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글뤽의 기념비적인 시집 『야생 붓꽃(The Wild Iris)』(1992)에서는 갖가지 종류의 꽃들이 짧고 형이상학적인 독백을 한다. 시집에 수록된 동명의 시는 일종의 부활을 모색하는 내용으로서, 글뤽의 작품 전체에 대한 제명(題銘)이라고 할 수 있다. 야생 붓꽃은 질푸른 색의 화사한 꽃이지만 겨울 내내 동면하는 알뿌리에서 자란다. 꽃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살아남는 게 끔찍해 / 검은 땅 속에 묻힌 / 의식으로서 말이야.”

*내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왔다
거대한 분수가, 질푸른 색
그림자를 담청색 바닷물에 드리우며.*



빌리 콜린스
1941-

빌리 콜린스의 시는 청량감이 있고 활기를 불어넣는다. 콜린스는 일상생활의 무수한 디테일을 기록하기 위해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날마다 하는 일(식사, 잡일, 글쓰기)과 문화적 지시물을 자유로이 섞는다. 그는 유머와 독창성을 통해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했다. 비록 일부에서는 콜린스의 시들이 지나치게 쉽다고 흠을

잡지만, 그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상 여행은 신비의 세계를 향한다.

Collins's is a domesticated form of surrealism. His best poems quickly propel the imagination up a stairway of increasingly surrealistic situations, at the end offering an emotional landing, a mood one can rest on. The short poem "The Dead," from *Sailing Alone Around the Room: New and Selected Poems* (2001), gives some sense of Collins's fanciful flight and gentle settling down, as if a bird had come to rest.

*The dead are always looking down on us, they say,
while we are putting on our shoes or making a
sandwich,
they are looking down through the glass-bottom boats
of heaven
as they row themselves slowly through eternity.*



Annie Proulx
1935-

The striking stylist **ANNIE PROULX** crafts stories of struggling northern New Englanders in *Heart Songs* (1988). Her best novel, *The Shipping News* (1993), is set even further north, in Newfoundland, Canada. Proulx has also spent years in the West, and one of her short stories inspired the 2006 movie "Brokeback Mountain."



애니 프루
1935-

콜린스의 작품들은 초현실주의의 온순해진 형식이다. 그의 대표작들은 초현실주의적 색채가 점점 짙어지는 상황들의 계단으로 상상력을 재빠르게 밀어 올리다가 마지막에는 정서적 충격을 제공함으로써 편하게 쉴 분위기를 조성한다. 시집 『방 주위로 혼자 항해하기(Sailing Alone Around the Room: New and Selected Poems)』(2001)에 수록된 단시 「망자들(The Dead)」은 상상 속에서 날아 오르던 새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땅으로 사뿐히 내려서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망자들은 항상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고들 하지,
우리가 신발을 신거나 샌드위치를 만드는 동안에,
그들은 천상의 보트에서 유리 바닥을 통해
내려다보고 있지
영원을 통과하며 천천히 노를 저으면서 말이야.

뛰어난 문장가인 **애니 프루**는 『마음의 노래(Heart Songs)』(1988)에서 고군분투하는 북부 뉴잉글랜드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들을 정교하게 제시한다. 그녀의 대표작 『항해 뉴스(The Shipping News)』(1993)의 배경은 훨씬 북쪽인 캐나다 뉴펀들랜드이다. 여러 해 동안 서부에서도 지낸 프루의 단편소설들 중 하나는 2006년에 개봉된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Brokeback Mountain)』의 바탕이 되었다.

Mississippi-born **RICHARD FORD** began writing in a Faulknerian vein, but is best known for his subtle novel set in New Jersey, *The Sportswriter* (1986), and its sequel, *Independence Day* (1995). The latter is about Frank Bascombe, a dreamy, evasive drifter who loses all the things that give his life meaning—a son, his dream of writing fiction, his marriage, lovers and friends, and his job. Bascombe is sensitive and intelligent—his choices, he says, are made “to deflect the pain of terrible regret”—and his emptiness, along with the anonymous malls and bald new housing developments that he endlessly cruises through, mutely testify to Ford’s vision of a national malaise.



Richard Ford 1944-



Amy Tan
1952-

Northern California houses a rich tradition of Asian-American writing, whose characteristic themes include family and gender roles, the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and the search for identity. One Asian-American writer from California is novelist **AMY TAN**, whose best-selling *The Joy Luck Club* became a hit film in 1993. Its interlinked story-like chapters delineate the different fates of four mother-and-daughter pairs. Tan’s novels spanning historical China and today’s United States include *The Hundred Secret Senses* (1995), about half-sisters, and *The Bonesetter’s Daughter* (2001), about a daughter’s care for her mother.

미시시피 주에서 태어난 **리처드 포드**는 초기에 포크너 식의 글쓰기를 지향했지만, 뉴저지를 배경으로 섬세하게 그려낸 소설 『스포츠 기자(The Sportswriter)』(1986)와 속편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1986)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독립기념일』은 몽상적이고 도피적인 방랑자 프랭크 배스콤에 관한 이야기이다. 배스콤은 아들, 소설가라는 꿈, 결혼, 애인과 친구, 그리고 직장 등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것을 잃는다. 배스콤은 예민하고 지적인 인물이다. 그의 말을 빌리면 자신의 선택은 “꿈쩍한 후회를 편향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그가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무명의 상점가들과 새로 개발된 단조로운 주택단지와 더불어 배스콤의 공허함은, 사회의 불안감에 대한 포드의 비전을 소리 없이 증언한다.



리처드 포드 1944-



에이미 탄 1952-

북부 캘리포니아는 아시아계 미국인 작가들의 전통이 풍부한 지역이다. 아시아계 작가들이 특징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가족과 성(性) 역할, 세대 간의 갈등, 정체성의 모색 등이다. **에이미 탄**은 바로 이러한 작가들 중 하나이다. 그녀의 베스트셀러 『조이 럭 클럽(The Joy Luck Club)』은 1993년 대성공을 거둔 동명 영화의 원작이다. 소설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 형식의 장(章)들은 모녀 네 쌍의 상이한 운명을 서술한다. 역사 속의 중국과 현대의 미국을 넘나드는 작품들로는 이복 자매를 다룬 『100가지 비밀스런 감각들(The Hundred Secret Senses)』(1995), 그리고 어머니를 돌보는 딸에 관한 『점골사의 딸(The Bonesetter’s Daughter)』(2001) 등이 있다.



Sherman Alexie
1966-

A Spokane/Coeur d'Alene Indian, **SHERMAN ALEXIE** is the youngest Native-American novelist to achieve national fame. Alexie gives unsentimental and humorous accounts of Indian life with an eye for incongruous mixtures of tradition and pop culture. His story cycles include *Reservation Blues* (1995) and *The Lone Ranger and Tonto Fistfight in Heaven* (1993), which inspired the effective film of reservation life *Smoke Signals* (1998), for which Alexie wrote the screenplay. Alexie's recent story collection is *The Toughest Indian in the World* (2000).



셔먼 알렉시
1966-

스포칸/코들레인 인디언인 셔먼 알렉시는 인디언 소설가들 중 최연소의 나이에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전통과 대중문화의 어울리지 않는 혼합에 주목하는 알렉시는 인디언 생활을 비감상적이고 익살스럽게 서술한다. 소설집으로는 『인디언 보호구역 블루스 (The Reservation Blues)』 (1995)와 『고독한 방랑자와 톤토, 천국에서 주먹 싸움을 하다 (The Lone Ranger and Tonto Fistfight in Heaven)』 (1993)가 있다. 『고독한 방랑자와 톤토』는 인디언 보호구역의 삶을 효과적으로 다룬 영화 『연기 신호(Smoke Signals)』 (1998)의 영감이 되었다. 알렉시는 이 영화의 대본을 쓰기도 했다. 최근 발표된 작품집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억센 인디언(The Toughest Indian in the World)』 (2000)이 있다.

Photo Credits: Page 8: Courtesy Library of Congress; 13: Courtesy National Portrait Gallery, Smithsonian Institution; 14: ©The Bettmann Archive; 15: Courtesy Library of Congress; 16: Courtesy Harper @ Bros.; 19: Courtesy Harvard College Library; 23: Illustration by Thaddeus A. Miksinski, Jr.; 25: Courtesy Library of Congress; 29: Courtesy Acme Photos; 30: ©AP Images; 31: Courtesy Library of Congress; 32: Courtesy Pix Publishing, Inc.; 34: ©AP Images; 35: ©AP Images; 37: ©AP Images; 39: ©The Bettman Archive; 41: (top) ©AP Images; (bottom) ©AP Images; 42: ©AP Images; 43: ©AP Images; 44: ©AP Images; 45: ©AP Images; 46: ©AP Images; 47: ©AP Images; 48: ©AP Images; 49: ©AP Images; 50: ©AP Images; 51: (top) ©AP Images; (bottom) ©AP Images; 52: ©AP Images.

사진 및 일러스트 제공 : 8쪽: Library of Congress; 13쪽: National Portrait Gallery, Smithsonian Institution; 14쪽: ©The Bettmann Archive; 15쪽: Library of Congress; 16쪽: Harper @ Bros.; 19쪽: Harvard College Library; 23쪽: Thaddeus A. Miksinski, Jr.; 25쪽: Library of Congress; 29쪽: Acme Photos; 30쪽: ©AP Images; 31쪽: Library of Congress; 32쪽: Pix Publishing, Inc.; 34쪽: ©AP Images; 35쪽: ©AP Images; 37쪽: ©AP Images; 39쪽: ©The Bettman Archive; 41쪽: (위) ©AP Images; (아래) ©AP Images; 42쪽: ©AP Images; 43쪽: ©AP Images; 44쪽: ©AP Images; 45쪽: ©AP Images; 46쪽: ©AP Images; 47쪽: ©AP Images; 48쪽: ©AP Images; 49쪽: ©AP Images; 50쪽: ©AP Images; 51쪽: (위) ©AP Images; (아래) ©AP Images; 52쪽: ©AP Images.

미 국무부 국제정보프로그램국
<http://usinfo.state.gov/>

Photo Credits: Page 1: © The Print Collector/Heritage-Images/Imagestate, UK. 3: Special Collections, (c) 2006 University of Leeds Library. 6, 7: UN Photo (2). 10: T. Cambre Pierce/AP Images. 11: AFP/Getty Images. 12: AP Images. 15: Themba Hadebe/AP Images. 17: Bibliotheque Nationale/akg-images. 18: Rare Book and Special Collections Division, Library of Congress (LOC). 20, 23: Prints and Photographs Division, LOC (2). 24: Bettmann/CORBIS. 25: Prints and Photographs Division, LOC. 27: Rudi Blaha/AP Images. 29: Eduardo Verdugo/AP Images. 31: Manish Swarup/AP Images. 32: Daniel Luna/AP Images. 33: AP Images. 34: Santiago Llanquin/AP Images. 35: Maria Steen/Moment/Redux. 36: Fejzon Numani/OSCE. 37: © Sinopix.

사진제공: 1페이지: © The Print Collector/Heritage-Images/Imagestate, UK. 3: Special Collections, (c) 2006 University of Leeds Library. 6, 7: UN Photo (2). 10: T. Cambre Pierce/AP Images. 11: AFP/Getty Images. 12: AP Images. 15: Themba Hadebe/AP Images. 17: Bibliotheque Nationale/akg-images. 18: Rare Book and Special Collections Division, Library of Congress (LOC). 20, 23: Prints and Photographs Division, LOC (2). 24: Bettmann/CORBIS. 25: Prints and Photographs Division, LOC. 27: Rudi Blaha/AP Images. 29: Eduardo Verdugo/AP Images. 31: Manish Swarup/AP Images. 32: Daniel Luna/AP Images. 33: AP Images. 34: Santiago Llanquin/AP Images. 35: Maria Steen/Moment/Redux. 36: Fejzon Numani/OSCE. 37: © Sinopix.